

KDMT1200145786

教育學碩士學位論文

景玉 李簾의 儒者意識과 詩世界

2 0 0 1 年 8 月

安東大學校教育大學院

漢文教育專攻

姜 賢 求

景玉 李簞의 儒者意識과 詩世界

指導教授：金 泰 鴈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安東大學校 教育大學院 漢文教育專攻

姜 賢 求

姜賢求의 教育學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 0 0 1 年 8 月

學位論文審查委員會

委員長： (印)

委員： (印)

委員： (印)

安東大學校教育大學院委員會

目 次

I. 序 論	1
II. 景玉의 生涯	4
III. 景玉의 儒者意識	8
1. 儒風의 振作	10
2. 儒敎的 名分의 強化	15
3. 輿論 文化의 暢達	18
IV. 景玉의 詩世界	21
1. 寓意的 手法의 人間 形象化	22
2. 自然 景觀의 高潔美	28
3. 農村의 牧歌的 情緒	33
4. 農民에 對한 愛民 情緒	39
V. 景玉 詩의 漢詩史的 意義	48
VI. 結 論	49
* 參考文獻	51
* 英文抄錄	54

I. 序 論

景玉 李簾(1629~1710)는 퇴계의 학문을 가학으로 계승하여 향리인 安東 臨東에서 처사적 생을 살아간 인물이다. 그는 퇴계의 처사 지향적인 삶을 추구하는 한편 향리의 유학 진작과 유품 계승을 통한 지방 유학의 토착화에 일정한 공헌을 했던 인물로 평가된다.

아울러 그는 강직한 처사적 면모를 구비하면서 농촌의 자연 미물의 속성을 들어 다양한 인물 유형을 우의적으로 표현하여 경박한 인간 유형에 대한 모종의 교훈성을 제시하기도 하며, 농촌 자연 경관을 통해 고결한 인격미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한적한 농민들의 생활상과 목가적 농촌 정서, 그리고 농민들의 애닦은 삶을 주시한 다수의 한시를 창작했다.

그의 사상과 문예적인 면모를 파악해 볼 수 있는 『景玉集』은 목판본 4권 2책으로, 漢詩가 104제 109수, 疏 2편, 說 2편, 序 7편, 記 13편, 跋 4편, 上樑文 2편, 祭文 4편, 墓碣誌銘 3편, 行狀 6편, 遺事 4편 등이 실려있다. 다수의 산문 등에서 그의 문예 취향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옥은 여러 편의 유학 관련 논설문을 집필한 바 있다. 특히, 그의 「儒疏說」은 상소문의 유의미한 기능을 언급했다.

이러한 일련의 처사적 생을 살아온 경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¹⁾ 그러다가 최근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에서 퇴계문도 문집 표점·영인 작업의 일환 사업으로 추진된 『退溪學資料叢書』(3차분)에 『경옥집』이 표점·영인됨으로써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다.²⁾ 이로써 경옥을 비롯한 퇴계 재전제자들의 학문과 사상, 그리고 문학

1) 다만 李樹健 교수의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一潮閣, 1998), p. 425에서 「嶺南禮疏」를 언급하면서 景玉의 「儒疏說」을 부분 인용하였다.

2) 安東大學校 退溪學研究所 編, 『退溪學資料叢書』 40(安東大學校 退溪學研究所, 1999). 이

성을 탐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말하자면 안동문화권 선비층의 학문과 사상을 검토할 수 있는 장이 열린 셈이다.³⁾ 시대적으로 지방화를 추구하고, 지방 문화를 중시하는 최근의 경향에 부응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본다.⁴⁾

본고에서 다룬 인물인 경옥은 퇴계와는 一族으로, 퇴계의 학문 경향을 가학으로 계승하여 그 의미는 자못 각별하다고 본다. 이러한 경옥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경옥집』의 「해제」가 있을 뿐이다. 해제에 그의 생애, 문집 체계, 시경향 등이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⁵⁾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지침을 토대로 하여 그의 처사지향적 삶과 유가적 인식의 토대로 형성된 그의 시를 다방면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것이 그의 사상과 문학을 아우르는 공통분모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논문의 체제는 먼저 그의 생애를 재구성하기로 한다. 이어 경옥이 향리에서 어떻게 유학적 실천을 期하고자 했던가를 문집에 산견되는 자료를 통해 정리한다. 그리고 이러한 처사적 정신 지향이 시에 어떻게 형상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하, 本稿의 臺本은 이 책이며, 인용면도 이 책의 면수를 따른다.

3) 安東의 16~17世紀 處士型 선비를 中心으로 한 研究 論著로, 李鍾虎 外, 『安東의 선비文化』(亞細亞文化社, 1997) 참조.

4) 『退溪學資料叢書』 編纂에 따라, 최근 이에 대한 연구가 다소 진척되었다. 주요 연구 업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李鍾虎, 「朝鮮中期 安東處士層의 憂國愛民詩」, 『退溪學』 第8輯(安東大學校 退溪學研究所, 1996).

金泰鴈, 「申適道の 生平과 義兵活動」, 『退溪學』 第8輯(安東大學校 退溪學研究所, 1996).

金泰鴈, 「石溪 李時明의 思想과 文學」, 『退溪學』 第9輯(安東大學校 退溪學研究所, 1997).

李鍾虎, 「朝鮮中期 安東處士의 典型과 現在的 意味-龍巒 權紀의 鄉村活動과 漢詩創作」, 『安東漢文學論集』 第6輯(安東漢文學會, 1997).

李源杰, 「龍巒 權紀의 詩에 反映된 文藝美」, 『安東文化』 第6輯(安東文化院, 1998).

金泰鴈, 「亦樂齋 金致寬의 生平과 憐民의 情緒」, 『安東漢文學論集』 第7輯(安東漢文學會, 1999).

金亨權, 「晚悟 申達道の 生涯와 詩世界」(安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9).

5) 李源杰, 「景玉集 解題」, 『退溪學資料叢書』 40(安東大學校 退溪學研究所, 1999).

1) 우의적 수법의 인간 형상화 2) 자연 경관의 고결미 3) 농촌의 목가적 정서 4) 농민에 대한 애민 정서 등으로 나누어 분석코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경옥의 처사적 삶의 정신 세계가 시로 어떻게 형상화 되었는가를 살피는 작업이다. 한편으로 이는 곧 퇴계학 연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기초 작업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II. 景玉의 生涯

景玉 李篋의 본관은 진보, 자는 信古, 호는 景玉이다. 그는 현 행정 구역상 安東市 禮安面 九龍里 陽玉에 거주하다가 만년에 거처를 臨東 大谷으로 옮겼다고 한다. 부친 爾樟은 진사·사마시에 합격을 하고 태학에 유학을 했으며, 글재주와 행실로 칭송을 받았다. 모친 仁同 張氏는 忠義衛를 지낸 友程의 따님이다. 경옥은 10세에 부친을 여의게 되었다. 모친 장씨는 학덕을 갖춘 분으로 자녀 교육에 남다른 열성을 보여 엄정한 교육 과정으로 자녀의 초학 교육에 힘썼다고 한다.⁶⁾

그 결과, 경옥은 유년 시절에는 특별하게 스승에게서 학문을 익히지 않았다. 이렇게 유년기를 거친 그는 일찍이 퇴계의 학문을 家學으로 계승한 재종 숙부 開谷 李爾松(1598~1665)에게서 본격적인 학문을 익혔다. 李爾松은 그의 문예가 특출함을 보고는 ‘집안을 일으킬 인물’이라며 칭송했다고 한다.⁷⁾ 弱冠에 이르러서 開谷의 외숙인 鶴沙 金應祖(1587~1667)에게 유학하여 학문을 익혔다.

경옥은 1676년(47세)에 급제를 하게 되었는데, 과거 응시자들의 난동으로 인하여 과장이 난장판이 되고 급기야 과거가 취소되었다. 이후로 그는 마침내 과거를 단념하게 되었다. 이내 敬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이어 1691년(63세)에 司饗院參奉에 제수되어 잠시 부임했다가 이내 귀향했다. 당시 재상들이 그의 품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육품으로 올려졌지만 그는 귀향을 결심하였다. 그러자 서울의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은 극구 만류했지만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⁸⁾

6) 『景玉集』, 「墓碣銘」, p. 245. “賢有識慮嘗曰 世言寡婦子無教 豈可使汝曹遊戲無度乎 嚴立課程 不以愛弛教 公初學皆口受於夫人”.

7) 『景玉集』, 「遺事」, pp. 235~236. “再從叔父 寺正開谷公 諱爾松學 才思通敏 不費訓督 而文藝日就 開谷公奇愛之曰 吾從氏雖早世 而必是兒也 大其後者”.

그 뒤, 贊成 權欽이 그에게 서찰을 보내어 상경하기를 재촉했지만 그는 끝내 거부하고 말았다. 만년에는 大谷山에 초옥을 짓고 산 이름에 의거하여 스스로 ‘경옥산인’이라 하였으며, 金邦杰·金泰基·李惟樟·柳挺輝 등을 從遊하였다. 이밖에 수십명 인사들과 함께 노인회를 조직하여 산수를 유람하며 시를 주고받기도 했는데, 이 때 남긴 시를 모은 것으로, 「孤雲寺契帖」과 「岐山寺契帖」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문집에서는 이러한 시들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경옥은 만년에 大谷先庄에 전장을 설치, 자호를 ‘경옥산인’이라 하고 유유자적한 생활을 하게 된다.

만년에 대곡산장에 띠집을 엮고 경옥산 위에 몇 이랑의 山田을 마련하고 인하여 景玉山人이라 자호하였다. 날마다 책을 끼고 술병을 가지고서 蕭然히 그 가운데서 늙으려고 했다. 간간히 대지팡이를 짚고 남여를 타고 구렁을 찾고 언덕을 지나니 시골의 늙은이들이 술통을 당겨 자리를 다투니 시골에 살면서도 신세가 궁박함을 느끼지 못했다.⁹⁾

이런 점에서 우리는 景玉의 처사적 생을 엿볼 수 있다.¹⁰⁾ 그는 경옥산인으로 자처하면서 자신의 궁박한 신세를 탓하지 않고, 향리에서 이웃과 좋은 관계 속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영위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따뜻한 인간애와 강직한 선비상을 구비했으며,¹¹⁾ 세상의 영욕에 대해 초탈했음을 다음 시를 통해 알 수 있다.

8) 『景玉集』, 「遺事」, p. 236. “時宰以此人不可比以常調 將爲稟啓超敘六品 而府君僂俛肅謝 卽爲棄歸 洛下知舊欲挽之 而竟不得相與出餞於邸 其後 權貳宰欽遺書促上來 府君報書以道其志 竟不赴”.

9) 『景玉集』, 「遺事」, pp. 238~239. “晩年結屋大谷先庄 置山田數頃於景玉山上 因自號景玉山人 日攜卷引壺 蕭然老其中 間以竹杖籃輿 尋壑經丘 村叟野叟 挈榼爭席 蓋不知巖谷之窮寂 而身世之蹇連也”.

10) 이는 이미 위에서 언급이 되었지만, 다음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景玉集』, 「景玉先生遺集序」, p. 3. “若景玉 則卒老於巖穴”.

11) 『景玉集』, 「景玉先生遺集序」, p. 4, “至論議事當否踔厲風發無能當其意者 憤左道邪逕之壞人

얻은 자 기뻐하고
 잃은 자 슬퍼하나
 천지간에 부끄러움이 없는 경지에 이르면
 得失이란 모두 진부한 자취인 것을.
 우습다. 변방 노인도
 미리 알았도다. 得과 失이
 웅당 달도한 이에게는
 일체 망각할 수 있는 것임을.¹²⁾

위의 시에서 경옥은 득과 실에서 비롯된 인간의 심사를 서술하고 나서 ‘塞翁之馬’의 고사처럼 세상 득실이란 부질없는 것이므로 달관한 자만이 이 명예를 초극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는 곧 그 자신의 정신 지향점이기도 하다. 만년을 이렇게 보낸 경옥은 1710년 82세의 일기로 처사의 생을 마감했다.

후인들의 기록에 의한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정리한다. 우선 그의 성품이 매우 청렴했던 점을 들 수 있다. 그가 서울에 응시하러 갔을 때, 그의 응시 장소가 一所였는데, 二所의 掌試者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떤 자가 은밀하게 그에게 二所로 옮겨 응시하도록 종용했으나 그는 끝내 따르지 않았었다. 또한 許積이 그의 명성을 듣고 자제를 시켜 패물을 보내어 만나기를 청했지만 그는 결국 거부했다고 한다.¹³⁾ 역시 그가 서울에 우거할 때 어떤 郎官이 부유한 고을의 수령이 얻는 봉록에 대해 말하자, 그는 몹시 언짢아하며 후일 자제들에게 재물과 권세에 대해 초연하길 가르쳤다.¹⁴⁾

心術 疾貪官酷吏之黷貨濫刑 則著坎離錄以見志 尙論之士 誦其詩 讀其書 亦可以知其人也”.

12) 『景玉集』, 「得失」, p. 9. “得者便欣欣 失者乃感感 及至俛仰間 得失俱陳迹 可笑塞上翁 預料失與得 惟應達去人 得失都忘却”.

13) 『景玉集』, 「遺事」, pp. 236~237. “府君天性剛方 植立揭揭 不會以一紙關節通於權貴之門 嘗赴京試 已錄名一所 而有相識爲二所掌試者 密令移赴 府君謝不從 許相積 素聞府君名 遣子弟致語京邸 以錦囊儲筆墨等物爲贈 要與相見 府君辭以草野寒士 不合相門往來 所贈遺并謝不受”.

이어 그의 인간상을 정리하기로 한다. 그는 가족과 이웃에게도 따뜻한 애정을 지닌 인물이었다. 한 번은 장인이 빈궁하게 사는 그를 보고 집과 땅을 마련해 주려고 했지만 그는 마다하고 만형과 한 집에 살기를 희망하여 거의 20년 동안 함께 살면서 늘 화목·우애하였다. 그리고 그는 경옥산으로 들어갈 즈음 땅과 노비들을 형제에게 모두 나누어주었다. 이웃 사람들이나 친척 중의 불우한 사람들에게는 귀천을 막론하고 자애를 베풀었다고 한다.¹⁵⁾ 집안 사람들에게는 노비들을 매로 다스리는 것을 엄금하고 그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해 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향리에서도 늘 모범적인 생활을 실천하였다. 각종 세금이 나오면 누구보다 먼저 납부했다고 한다. 한편 그는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강인한 성격과 나라의 안위를 염려하고 時俗을 애통해 하는 유자적인 인간상을 구비했다. 선비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이단사설에 현혹되는 것을 경계하였으며, 유학의 진흥과 지방 서당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이 사회에 유교적 덕목을 구현시킬 것을 시종 역설하였다.¹⁶⁾

14) 『景玉集』, 「遺事」, p. 237. “補外 其人曰 某邑甚甘 府君心鄙之 後每舉似戒子弟曰 士君子雖有時乎貧仕 而豈專爲口腹謀哉”.

15) 『景玉集』, 「遺事」, pp. 237~238. “自少於聲色貨利 廓然不留情 婦翁權公憂其無資財 欲析產贅居 府君辭焉 與伯兄上舍公同居一室 殆二十年 及後入峽 凡田宅臧獲 皆讓與兄弟之貧者 一不求分焉”.

16) 이는 「書院說」·「儒疏說」·「名分說」·「鏡光書院三賢請贈疏」에 잘 나타나 있다.

Ⅲ. 景玉의 儒者意識

위 경옥의 생애 부분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는 애당초 벼슬길에 연연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는 63세 때에 司饗院參奉에 제수되어 잠시 부임하고 이내 귀향하여 82세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시종 향리 생활로 일관하였다. 그가 굳이 향리 생활을 하고자 했던 의도가 다음 기록을 보면 극명히 드러남을 파악할 수 있다.

일찍이 陵官에 추천되었으나 나가지 않았으며, 이어 司饗院에 제수되자 잠시 나갔다가 여행 삼아 돌아왔으니 어찌 선생께서 當世에 관심없던 사람이라 할 것인가. 다만 스스로 좋아하는 바가 있었을 뿐이다. 만약 그를 끌어 일을 하게 해 육체를 활동하게 했다면 위로는 辭命을 짓고 임금의 정책을 도왔을 것이며, 아래로는 탁한 이를 감격케 하고 맑은 이를 드러내 世教를 불들였을 것이나 막히어 쓰여지지 못해, 궁한 골목에 남다른 기상이 감춰지고 거친 들판에 원대한 뜻이 버려진 채, 즐겨 경옥산인으로 살다 몸을 마쳤으니 命이었다. 그러나 갚은 이로써 마음에 걸려하는 바가 없었다.¹⁷⁾

이 예문이 시사하는 바처럼 그는 그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위해 쉽게 출사를 거부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山水自樂과 다름 아니다. 이는 곧 그가 향리에서 逍遙吟詠하며, 성현의 유훈을 체득하여 심성수양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내심의 발동이라 해야 옳을 것이다.

이러한 그의 의지는 다음 「景玉山莊記」에 잘 드러나 있다.

17) 『景玉集』, 「景玉先生遺集序」, p. 4. “又嘗薦授陵官 而不赴 續有司饗除命 而暫出旅歸 豈先生無意於當世哉 蓋亦有所自樂者存耳 使其引而置之有爲之地 以展布其四體 則上之可以潤色 辭命黼黻皇猷 下之可以激濁揚清扶持世教 而乃闕而不試 斂奇氣於窮巷 拋遐志於荒野 甘爲景玉山人 而以歿身焉 則命也 然 公不以是嬰其懷”.

내 평생 농사는 배우지 못했으며 또 생계 계획은 어두웠다. 때문에 집은 늘상 끼니를 잇지 못해 수십 이랑의 땅을 사서 자급하려 하였으나 쌀자루를 채우지 못해 부끄러웠다. 黑鼠(壬子, 1672)년 봄에 臨河縣 桂谷里에 우거하였는데 골짜기 사람 중 崔氏 姓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밭을 팔려고 하였으나 땅이 척박하여 팔리지 않았다. 내가 마침내 재화를 기울여 소유하게 되었다. 밭은 산 위에 있어 추위가 일찍 찾아오고 바람이 많았다. 토양은 적색인지라 수해나 한해에 견디기 어려웠다. 해마다 거두어들이는 양은 5말 정도였다. 종 한 명을 보내어 살게 해 농사일을 맡게 하였다. 내가 틈을 내어 수확한 것을 살펴보러 간 것이 네 차례였는데, 아래쪽의 경사진 곳은 끊어질 듯 가파르고 위쪽 끝은 평평하였다. 앞쪽은 한 길이 나있어 왕래가 가능하였다.

옛적 마을 유지에는 부엌 연돌이며 우물 구멍이 依然하여 구별할 수 있었고, 복숭아·살구·대추·배·깨끔·앵두·추자·밤·오얏 등등에서도 어떤 것들은 묵은 그루터기에서 난 싹들이 드러난 채, 숨은 채로 있으며, 어떤 것들은 상처를 입은 채로 겨우 남아 있었다. 그 밖에 奇勝可觀處는 없어 달리 풍치가 마음에 드는 것은 없었다. ... 내가 비로소 기뻐 얻은 바가 있어 그 산의 이름을 물으니 '景玉'이라 하였다. 시를 읊조릴 만 하여 마침내 山名을 취하여 정자 이름을 지었다. 생각해보니 땅이 名勝으로 드러난 것은 대부분 崎嶇幽隱한 곳에 있다. 비록 險絶寥更·曠朗奇偉의 경관이 있더라도 눈에 들 수 있는 境界가 다하기 쉬우니 눈에 들 수 있는 경계 밖의 것은 모두 나의 소유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 이 산은 곧게 우뚝 솟은 흙언덕일 뿐이지만 수백리 안의 名山·大嶽을 모두 한 눈에 거두어 들일 수 있고, 또 나의 胸中이 여덟·아홉 구름 꿈을 삼켜도 막힘이 없는 것 같으니, 崎嶇幽隱處와 비교하더라도 어느 것이 더 낫겠는가.

내가 이에 느끼는 바가 있었다. 학문을 하는 자에 비유하건대 처음에는 下學의 단계를 쫓다가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것과 같다. 비록 기이한 자취는 없더라도 세상을 놀라게 하고 사람을 감동시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昭曠之域에 홀로 이를 것이며, 온 천하의 萬事·萬物도 나의 헤아림 안에 있지 않는 것이 없게 될 것인 즉, 마치 이 산의 차지한 형세가 높아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밭을 산 것으로 인해 이 산의 勝地를 깨달았고, 이 산의 勝地로 인해 爲學之方을 깨달았다.¹⁸⁾

경옥은 이 글의 서두에서 「경옥산장」을 설치한 경위를 밝혔다. 그리고 이 산의 산세를 상세히 설명하고는 자신의 만년 휴양소로 삼게 된 연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이 경옥산의 장점은 일단 등산을 하게 되면, 주위 안동 경내 명산이 한 눈에 들어 오며, 소위 下學而上達하는 원리를 체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경옥의 처사 지향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구현되는가를 살펴볼 차례이다.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하기로 한다.

1. 儒風의 振作

『경옥집』에는 그가 유가의 이념을 체득하고 실천하려는 일단의 노력이 엿보인다. 권2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鏡光書院三賢請贈疏」를 비롯한 세 편의 논설문이다. 이 부분에서 그의 유자적인 의식을 짚어 낼 수 있다. 먼저 상소문의 내용을 검토하면, 경옥은 우선 서두에서 고려조 儒賢 裴尙志와 성종대 홍문관 교리를 지냈던 李宗準 두 분에 대한 조정의 예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논리정연하게 서술했다. 그리고 나서 장흥효의 행적에 대해 서술했다.

18) 『景玉集』, 「景玉山庄記」, pp. 96~99. “余平生不學稼 且味計然術 以故 家常不繼 常欲買數頃地以自給 而橐恥不能 在黑鼠春 寓居臨河縣之桂谷里 有峽氓崔姓者 謀售田於人 而薄不得售 余遂傾貲有之 田在山上 早寒多風 土且赤埴 水旱俱不利 歲所收俛若而斛 令一僕往居任耕耘之事 余間以省穫而至焉 四 下陡斷 上稍平夷 而前有一線路 可通往來 舊有村居遺址 竈突井口 依然可辨 桃杏棗梨來禽櫻桃楸栗李柰之屬 或作老槎昂藏 或刑餘僅存 他無奇勝可觀處 殊不愜雅致 … 余始欣然有得 詢其山名則曰景玉 殊雅捷可誦 遂取以名軒 因念 地之以名勝著者 多在崎嶇幽隱之處 雖有險絕寥更曠朗奇偉之觀 而目境易窮 目境之外皆非吾有也 若茲山者 直嶺然一土阜已 而能使數百里間名山大嶽 舉皆收入於寸眸 使我胸中如吞八九雲夢而不芥滯 其視崎嶇幽隱之處 孰與多乎 余於是 又有感焉 譬之爲學者 初從下學處 循階躡級而上 雖無奇瑰之蹟 可以驚世動人 而所詣既高 所見既大 則不覺其獨到於昭曠之域 而舉天下萬事萬物 無不在吾度內 如慈山之占勢高而所見遠也 余因買田 而得茲山之勝 因茲山之勝 而得爲學之力”.

엿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위로는 태종 임금의 치도를 체찰하시고 아래로는 중종 임금을 法삼아 不事二君의 곧은 절조를 심히 가상히 여겨 특별히 원을 품은 忠貞한 이들을 슬피여겨 吉再를 포장한 은전을 미루어 배상지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 무오년의 여러 신하들을 증직한 일을 통해 그 은전을 이종준에게도 함께 베푸시어 포장의 은택을 죽은 이에게 미치게 하고, 賜額의 은택을 享祀지낼 곳에 덧붙여 내려 주신다면 風聲을 세우고 冤鬱을 풀어주는 바가 더욱 祖宗에 빛날 것입니다.

臣 등이 또 가만히 생각건대, 옛 참봉 장홍효 역시 근세 유현입니다. 先正臣 金誠一, 柳成龍 문하에 출입하여 일찍이 심학의 요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거공부는 일삼지 않았으며, 뜻을 독실히 하고 행실에 힘써 固窮·安貧한 가운데 더욱 易學에 用力, 一元消長의 理致를 推演하여 圖說을 만들고 후학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先正臣 鄭述는 ‘이전 사람이 펴내지 못한 것을 펴냈다’는 칭찬을 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학문한 바의 바름과 나아간 경지의 심오함을 이러한데서 알 수 있습니다.

인조조에 특별히 齋官으로 제수하여 嘉獎했으나 恩命이 이르기도 전에 불행히 죽어 林下潛德에게 당시에 은전이 베풀어지지 못했으나 그 遺風·餘馥은 후세에 師表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兩臣(배상지, 이종준)의 사당에 함께 향사되기를 청하는 바입니다. 무릇 그들은 전후 한 마을에서 배출된 사람들로 그들의 향기가 전해지고 그들의 아름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¹⁹⁾

경옥은 이미 배상지와 이종준이 병향되어 있는 경광서원에 장홍효를 추가로 병향할 수 있도록 조정에서 조처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의 유품과 향기는 후세인

19) 『景玉集』, 「鏡光書院三賢請贈疏」, pp. 53~55. “伏願殿下 上體太宗 下法中廟 深嘉不二之貞操 特哀抱冤之忠貞 推褒獎吉再之典 以及於裴尙志 舉戊午諸臣之贈 同施於李宗準 使褒獎之澤 及於泉壤之間 宣額之恩 加於俎豆之地 則其所以樹風聲解冤鬱 尤有光於祖宗矣 臣等又竊以爲 故參奉臣張興孝 亦近世儒賢也 出入於先正臣金誠一柳成龍兩賢之門 早聞心學之要 不事舉子之業 篤志勉行 固窮安貧 而尤用力於易學 推演一元消長之理 作爲圖說 以喻後學 而先正臣鄭述 至以發前人未發 稱之 其所學之正造詣之深 於此亦可見也 仁廟朝特除齋官以嘉獎之 而恩命未至 不幸先逝 使林下潛德不得施於當時 而其遺風餘馥 足爲師表於後世 故並爲陞祀於兩臣之廟 蓋以前後出於一里 而傳芳襲美也”.

들의 귀감이 되며, 특히 안동의 유휘 진작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적극적인 조정의 예우가 있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경옥은 이 점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만약 포장하여 높이는 은전을 한 차례 몸소 시행하신다면 多士들의 오랜 억울함을 달랠 수 있고 또한 나라가 유학을 숭상하는 도를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신 등은 영남지방의 몽매한 사람으로 군자의 고을에서 성장하여 군자의 풍을 慕仰하였사옵기에, 정말 절의 도덕이 점점 沈淪되어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지 아니하여, 우리 聖朝에서 綱紀를 붙들어 세우는데 결함 되는 바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리하여 두려워 千里를 향해 구중궁궐을 나아가 호소하지 못하고 성총을 더럽혀 어지러운 죄가 용서받지 못할 바가 있습니다만 신 등은 구구히 贈爵을 간절히 비는 마음 헤아릴 수 없어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는 바입니다.²⁰⁾

이런 士風을 진작하려는 그의 의지는 退溪 先祖들의 세거지인 眞寶縣에 서원을 세워 퇴계의 유휘를 진작해 달라는 상소문인 「鳳覽書院請額疏」에도 잘 드러나 있다.

엎드려 생각건대, 先正 臣 文純公 李滉은 주자학의 적전을 전하고 여러 賢人들의 크게 성취한 바를 집대성하여 학문이 순정하고 도덕이 고심하니, 참으로 우리 나라 백대의 宗師입니다. 후학들의 존모함이 더욱 간절하고 列賢들의 포장함도 모두 지극하여, 오늘날까지 백여년 이래 크고 작은 郡縣에서 서원을 짓고 사당을 세운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모두들 사액의 은전을 입었사오니, 正學을 존승하고 儒賢을 表章한 바가 一代의 유교를 진작하고 萬世에 表準을 세운 바가 오히려 지극하옵니다.²¹⁾

20) 『景玉集』, 「鏡光書院三賢請贈疏」, p. 55. “如使褒崇之典一體施行 則足以慰多士久鬱之望 亦可以彰國家崇儒之道矣 臣等嶺外蒙學之士也 生在君子之鄉慕仰君子之風 深恐節義道德 漸至沈淪 不克顯揚於世 而其於我聖朝扶綱立紀之缺有所闕 故裹足千里來叫九重 瀆擾之罪 在所不赦 臣等不勝區區懇祈之至 謹味死以聞”.

21) 『景玉續集』, 「鳳覽書院請額疏」, pp. 274~275. “伏以 先正臣文純公李滉 得考亭之嫡傳 集

인용문의 마지막 대목에서 ‘성리학을 존숭하고 선현을 포장하며, 유교 이념을 흥기시켜 만세의 사표로 삼는 것’이 결국 경옥이 추구하는 유교적 향촌사회 건립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경옥의 처사지향적 삶은 퇴계의 학문을 계승한 후 예인만큼 퇴계가 추구하던 은거구도와 접맥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는 분명 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유교의 지방토착화에 기여한 인물이었다고 본다.²²⁾

이러한 그의 의지는 「書院說」에서 보다 절실히 드러난다. 그는 서두에서 중국 서원의 기원과 유래를 들면서, 우리 나라의 최초 서원인 백운동서원 건립 내력을 소

羣賢之大成 學問醇正 道德高深 實吾東方百代之宗師也 後學之尊慕益切 列聖之褒獎備至今百餘年間 大小郡縣立院尊祠者 在在皆然 咸蒙宣額之典 其所以尊嵩正學表章儒賢 振一代之儒教立萬世之表準者 於乎至矣”.

- 22) 이외에도 경옥은 「書節婦安氏傳後」에서 ‘烈’에 충실한 여성 안씨의 절개를 찬양하고 있다. 그는 그녀가 柳錫井과 정혼한 터에 석정이 폭사하자, 수백리 길을 달려와 애곡했으며, 곡을 마치고는 고인의 의복을 수습해 돌아가서는 신랑을 길에 추모하다 초연히 병든 채 절명하여 節을 고수했다는 얘기를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당대 유교 이념에 충실한 경옥의 유자의식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余讀柳君大時所撰烈婦安氏傳 已擊節而歎 歎而悲 悲而有所感也 夫古今烈婦之死於夫者 何限 而或有所迫焉而死 有所激焉而死 縊而死 刃而死者 均之爲節義 而皆出於急遽倉卒之間 其於死也 固有所不暇計也 若夫不激不迫 從容回翔 矢死必遂者 千百年乃一人耳 豈不卓卓然尤難矣乎哉 節婦旣笄歸于柳生錫井 未及于歸 柳生猝病以死 安氏抱弱息 越數百里奔哭 以不得臨訣爲至痛 乃以死之一字 自誓于心 凡所以傷生致死者 無不爲之 舅姑哀而寬譬 則遜辭以對而終不變 及服闋 而歸寧其母氏也 夫之遺服盡裝載以歸 以爲死後附身之計 終至氣盡疾革而怡然以從夫地下爲喜 則烈婦矢死之心 至此而得遂矣 其從容回翔 不迫不激 而死得其節者 何如哉”. 안동지역의 열녀에 대해서는 黃萬起, 「烈女傳 研究」-安東文化圈을 중심으로(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참조. 18세기 안동출신 작가 權槩의 『蘭幽錄』에도 효자, 효부의 입전이 다수 엿보이는데, 관련 논문은 李鍾虎, 「屏谷 權槩의 蘭幽錄을 통해 본 18세기 안동의 민중형상」, 『安東文化』 제13집(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1992) 참조. 조선조 열녀들의 행적은 朴珠, 『朝鮮時代의 旌表政策』(一潮閣, 1997) 참조. 한편, 「書近始齋金先生遺稿後」를 보면, 안동 의병장 近始齋 金垓의 임란 참전의 의기가 넘쳤음을 볼 수 있게 한다. 경옥은 진중에서 金公이 부인의 부음을 듣고 집안에서 시신을 수습할 길이 없음을 알고는 급히 달려가 장례를 치른 후, 복귀 도중 병을 얻어 죽었다는 얘기를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한 인물이 드러난 가족애와 조국애가 합치된 의기를 통해, 金垓라는 인물의 忠烈이 과연 어떠한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상히 밝혔다. 이후로 조선 팔도에 특수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 서원이 세워지고 선현을 추모하는 유학 진작의 기풍이 일어났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우려한 것은 근래 이 서원이 과거 준비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는 반면, 講學·尊賢의 역할이 위축되어 가는 것이었다.

처음엔 서원을 설립한 후에 사당을 세웠는데, 그 뒤로는 사당을 세우고 나서 서원을 설립하였다. 이로부터 이후로 현인들에게 제사지내는 것이 중요시되었으며 講讀은 그 다음이었다. 그러나 모든 서원은 강독을 흥하게 하고 권장해야 한다. 이렇게 방향을 잡는다면 그 輕重의 선후에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 우리 나라에서 서원을 설립하였다는 말은 新羅나 高麗시대에는 듣지 못했다.

本朝에 이르러 愼齋 周世鵬이 풍기군수가 되었을 때 文成公 安珣의 사당을 백운동에 창설함으로써 비로소 서원이 세워진 것이다. ‘소수서원’이라 명칭하고, 선비들을 모아 강독하는 장소로 삼았다. 퇴계 선생이 이어 이 고을 군수가 되어 方伯에게 글을 올려 조정에서 편액을 내려주고 서적을 하사해 주길 청하였다. 강독을 격려·권장하는 방향은 한결같이 백록동 규약을 준수한 것이다. 이것이 서원의 시초였다.

이후로 州縣의 선비들이 다투어 서원을 세워 현인을 제사하기 시작하였는데, 큰 고을에는 많게는 십 여 곳, 적게는 서너 곳이 있었다. 작은 고을에서도 역시 설립되지 아니함이 없었는데, 더러는 첩설된 곳도 있었다. 설치되지 않은 곳은 바닷가나 깊숙한 골짜기, 외진 변방이나 황폐한 곳 등 약간의 고을뿐이었다. 온 나라 안이 書院, 精舍·里社였으니, 宋末에 지어진 다수의 서원보다 뒤지지 않았다. 그 방향은 한결같이 현인에게 제사지내는 것을 중요시하고 강독에 뜻을 두지 않았다. 간혹 선비들을 모아 학문을 권장하는 곳이 있었지만 科場製造를 위하거나 어린 아이들에게 구두를 가르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으며, 지금은 또한 모두 없어져 글 읽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으니 어찌 감히 의리를 강구하고 학문을 성취하고 인재를 教養하는 도를 바라겠는가? 대저 당초에 서원을 세운 본 뜻이 아니다. 아! 서원을 세움이 어찌 정말 그렇게 되었는가.²³⁾

경옥은 이 글에서 서원 건립의 본래 의도와는 달리 서원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²⁴⁾ 경옥의 이러한 우려 이면에는 서원이 소기의 건립 의도를 제대로 발휘하기를 소망한다는 역설적 논리가 내재해 있다. 서원이 尊賢養士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때 유교 문화의 지방화는 보다 충실히 이루어지리라 확신한 것이다.²⁵⁾ 이는 마치 퇴계가 자기의 고향 예안에 서당을 개설하고 인근에 서원을 건립하여 문도를 길러냄으로써 전국을 성리학적 규범이 지배하는 이상 사회로 만들고자 한 것과 유사하다.²⁶⁾

이러한 경옥의 유학 활성화 의지는 유교적 명분논리의 강화로 확대된다.

2. 儒教的 名分の 強化

경옥은 국가 기강이 해이해지고 상하의 윤리 강상이 문란해지는 원인이 “명분의 해이”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名分說」에서 나라와 사회의 기강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한다고 力說했다. 이를테면 그것은 名分이 바로 세워지지 못함

23) 『景玉集』, 「書院說」, pp. 56~58. “當初 則設院而後立祠 其後則立祠而後設院 自是以來 祠賢爲重 而講讀次之也 然而俱是講讀興勸之 方則不害其輕重之先後也 … 我東設院 羅麗之世無聞焉 至本朝周愼齋世鵬爲豐基守 朔安文成公祠於白雲洞 因爲建院 號曰紹修書院 以爲聚士講讀之地 退溪先生繼守是郡 上書方伯 請于朝 頒號額賜書籍 其講讀激勸之方 一遵鹿洞 此書院之權輿也 自是之後 州縣士子 爭自建院祀賢 大邑則多至十餘所 小不下四三所 至於小邑 亦無不設 而或有重設之處 其不設之地 不過海濱窮峽遐裔荒漠若干之邑 通國內曰書院 曰精舍 曰里社者 不下於宋末之多 而其法一以祀賢爲重 不以講讀爲意 間有聚士勸學之處 而不過科場製述蒙學句讀 而今亦全廢無聞焉 其敢望講究義理成就學問教養人才之道乎 大非當初設院之本意也 吁 書院之設 豈端使然哉.”

24) 朝鮮朝 書院에 對해서는 鄭萬祚의 『朝鮮時代 書院 研究』(集文堂, 1997)를 참조함.

25) 안동 처사층의 教育 活動과 書院創設運動에 대해서는 吳壽京 교수의 「安東 선비의 文化意識과 鄉土文化 暢達」, 『安東의 선비文化』(亞細亞文化社, 1997)를 참조함.

26) 李鍾虎, 「佔畢齋 金宗直의 文學觀에 나타난 階層意識」, 『漢文學研究』 제12집(啓明漢文學會, 1997) 및 李佑成, 「李退溪와 書院 創設運動」, 『韓國의 歷史像』(創批社, 1983) 참조.

→ 民志가 고정되지 않음 → 참람한 일들이 突起함 → 기강이 문란해 짐 → 상하의 질서 분간이 안 됨 → 예법이 행해지지 못함 → 국가 전체의 피해로 확대된다고 하는 것이다.

先儒들이 일찍이 말하기를, ‘명분이 정해지지 아니하면 진실로 나라에 큰 우환이 온다’ 하였다. 대저 명분이 정해지지 아니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없고,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지 아니하면 僭亂한 일들이 일어난다. 참람한 일들이 일어나면 지위가 낮은 이가 높은 이를 넘고, 천한 이가 귀한 이를 해치며 젊은이가 어른을 능멸하여 上下가 구분되지 않게 된다. 상하가 구분되지 않으면 예법이 행해지지 아니하고 예법이 행해지지 아니하면 나라가 그 폐단을 받게 되니 어찌 큰 걱정거리가 아니겠는가?

우리나라의 백성들의 등급은 정해진 바가 매우 많다. 幼學·校生·貢生·百姓·私賤·白丁 등이 그것인데, 절로 한계와 등차가 있어 더욱 截然하게 嚴謹하다. 貢生 이상 校生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문과나 무과의 시험을 볼 수 있게 하였다. 국법에 상하를 구분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名分을 중요시한 바가 이같이 엄정하였다. 이 때문에 높고 낮음이 번잡하지 않고 上下가 도덕질서를 지켜 僭亂한 일이 鄉邑에서는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수십년 이래로부터 점점 무너져 없어지는 단서가 발생하여 法禁마저 解弛해져 두려워 할 것이 없게 되었다.

戶籍正案과 赴舉都目 조차 모두 모두 幼學의 손에 의해 쇠여졌기 때문에 官에서도 금하지 못하고 나라에서도 역시 죄주지 못하였으니,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한 것이 지금보다 심한 적은 없었다.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한 것이 이같다면 지금 다시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것인가’라 한다던가, ‘명분의 폐단이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한데서 말미암았으며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한 것이 교화의 不振에서 말미암았다’ 하는 것은 특별히 在上者가 더욱 힘써야 한다는 뜻이 內在된 말일 따름인 것이다. 대저 근래의 郡守나 牧使들의 정사는 강자를 억제시키고 약자를 부추기는 이론에 힘을 써서 아랫사람이 참람되고 윗사람이 職任을 그만두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자연히 생겨남으로써, 명분이 무너지는데 이르게 되었다.²⁷⁾

27) 『景玉集』, 「名分說」, pp. 58~60. “先儒嘗有言曰 名分之不定 誠國家之大憂 至哉 言乎 蓋

경옥은 위 예문에서 나라의 기강해이에 따른 각종 폐해를 들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고, 상하의 신분 질서가 교란되었으며, 나라의 법도마저 뒤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심각한 우려를 드러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폐단을 극복할 대처 방안은 무엇일까?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하자.

지금 나라에서 呂氏鄉約을 八道の 郡縣에 반포해서 그들로 하여금 사건 별로 거행하게 하여 징계·권장의 근본을 삼게 한다면, 거의 반쯤의 사람들은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말하기를, “呂氏鄉約은 이전에도 거행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닌데 그 효험을 보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대답하기를, “한갓 法만으로는 절로 실천될 수 없듯이 이전에 거행한 것은 형식을 넘지 못하고 그쳤으니 어찌 실효가 있겠는가? 지금 만약 수령들이 백성을 인도하여 다스리는 정사를 펴에 먼저 명분을 중요시하여 향약을 거행하기를 久遠의 계책으로 삼는다면 백성들의 마음을 거의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²⁸⁾

경옥은 이런 병폐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에 파견된 수령들이 「鄉約」의 실천을 통해 향리 주민들을 계도하고 교화시켜 유교적 덕목을 실천하여 미풍을 고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²⁹⁾ 이를 위해서는 지방에 파견된 목민관들이 솔선수범하여 이러한

名分不定 則民志不定 民志不定 則僭亂之事起 僭亂之事起 則卑踰尊 賤妨貴 少陵長 而上下不分 上下不分 則禮法不行 禮法不行 則國受其弊 豈非可憂之大者乎 我國制民等級甚多 曰幼學 曰校生 曰貢生 曰百姓 曰私賤 曰白丁 自有限隔階第 尤截然嚴謹 自貢生以上 至校生 皆許赴文武科 國法之所以辨上下定民志重名分 若是其嚴也 是以 尊卑不繁 上下相維 僭亂之事不作於鄉邑之間矣 自數十年來 漸有陵替之端 而法禁又爲解弛無所懲懼 乃於戶籍正案 赴舉都目 皆以幼學書之 而官不之禁 國家亦不之罪 民志之不定 莫甚於今日矣 曰民志之不定如此 則今難更定乎 曰名分之弊由於民志之不定 民志之不定由於教化之不振 特在上之人加之意耳 大抵挽近守牧之政 務爲抑強扶弱之論 使下僭上替馴致至於名分陵夷”.

28) 『景玉集』, 「名分說」, p. 60. “今自國家頒呂氏鄉約於八路郡縣 使之逐件舉行 以爲懲勸之地 則庶幾救得一半矣 曰呂氏鄉約 前此舉行者 非一而未見其效 何也 曰徒法不能自行 前此舉行不過文具而止 則豈有實效乎 今若守令道齊之政 先以名分爲重 而舉行鄉約以爲久遠之計 則民志庶乎可得以定矣”.

향약의 실천을 영구한 계책으로 삼아 시행함으로써, 성리학적 명분이 바로 잡혀,³⁰⁾ 상하의 윤리와 기강이 정립된다고 보았다.

3. 輿論 文化의 暢達

경옥은 「儒疏說」에서 언론 창달에 대한 지론을 보이고 있다. 그는 孝宗 元年 「牛栗陞庶反對疏」의 疏首였던 柳稷의 문인인데, 이 글에서 유소의 기능에 대해 그 공과를 거론하였다. 儒疏의 기능은 대체로 17세기 초까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당쟁이 격화된 초반을 넘으면서 편당에 치우쳐 부작용이 유발되었다고 본다.³¹⁾ 이러한 시각에 대해 경옥의 「儒疏說」에 나타난 경우를 통해 살피기로 한다.

경옥은 이 상소 서두에서 우선 중국 유생들이 상소를 통해 나라의 안위에 동참했음을 예증했다. 이어 우리 나라의 유생들이 벌였던 적극적인 상소운동의 경우(기묘 사화에 희생된 인물의 신원, 요사한 중 普雨의 척결, 회재와 퇴계에 대한 辨誣疏 및 毀斥疏, 五賢 문묘 종사, 광해조 李爾瞻의 처단, 栗谷과 牛溪의 문묘 종사 문제, 孝宗代 禮論)를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유생들의 언론 활동이 우리 나라 역사상 윤리와 기강을 세우고 폐단을 교정하여 여론 정치 창달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강조했다.³²⁾

경옥은 이 논설문의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그런 막중 대사에 사사로운 감정이 좌우된 모함, 청탁에 의한 인신 공격 따위는 절대 배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하여

29) 朝鮮朝 鄉約에 관해서는 池教憲 外, 『朝鮮朝鄉約研究』(民俗苑, 1991)를 참조함.

30) 이러한 전통은 이 시기 보다 앞선 15세기에 영남사림파에 속하는 인사들이 대부분 이러한 목적을 영남지방의 수령을 역임하면서 지방교육을 진작시키고, 성리학적 실천윤리를 몸소 실천하면서 敎民化俗했던 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李樹建, 『嶺南士林派의 形成』(嶺南大學校出版部, 1996), pp. 258~276 참조.

31) 李樹建,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一潮閣, 1998), p. 527.

32) 『景玉集』, 「儒疏說」, pp. 60~64.

그는 참다운 정치란 여론 창달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무릇 儒疏가 비록 충의의 격발에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草野人의 것과 臺府의 것이 다르니, 유학에서 일삼아 연계할 것이 못된다. 나라를 흥망케 하는 바의 것이라면, 어찌 하나의 政令을 내고 하나의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도 실수를 범하여 사건들을 번거롭고 시끄럽게 하는 것으로 위치를 이탈하여 祭器를 넘는(외람된 행위) 혐의를 取해서야 될 것이라. 더욱이 그 말한 바가 만약 조금이라도 편파적인 私가 있다면, 功과 利를 피하고 임금과 위사람을 속이는 죄가 클 것이나 어찌 공론이라 하겠으랴. 내 살피건대 지금의 유소라는 것이 어떤 것은 남의 지시나 사주를 받아 지은 것이 있고, 어떤 것은 重望人의 風旨를 받기 위해 지은 것이 있으며, 어떤 것은 남의 인격을 기울여 모함하고자 펴낸 것이 많다.³³⁾

경옥은 국가의 존망위기는 정치의 득실에 직결되는 바, 一毫의 사심도 간여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때문에 상소문은 功利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변용되어서도 아니되며, 남의 부추김을 받아 활용되는 것도 근절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오직 곧은 기운과 정당한 논리를 담은 상소문화를 이룩하여 바람직한 언론 정치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조선조의 지배통치 이념은 忠·孝·烈에 입각한 유교적 덕목을 구현하기 위한데에 있었던 바, 향약의 시행은 곧 일반 백성들의 교화를 통해 향촌질서와 명분을 바로 잡고자 한 범국가적인 사업이었다.

「沱陽書堂重修記」를 보면 고려조의 鄉里 명현 金時彦·孫三重·孫洪亮 등이 강학하던 옛터에 향리 장로들의 주선에 의해 서당을 중건한 내력이 기술되고 있는데,

33) 『景玉集』, 「儒疏說」, p. 64. “大抵儒疏 雖云出於忠義之激發 而草野事體 與臺府異若 非事係斯文 及國家所以興亡者 則何可以一政令一舉措之失 而隨事煩聒 以取出位越俎之嫌哉 況其所言若有一毫偏係之私 則其計功謀利欺君罔上之罪 大矣 何可謂之士論乎 余觀今之儒疏 或受人指嗾 或承望風旨 或欲售傾陷而發者 多矣”.

여기서도 우리는 경옥의 향리 교육에 기울인 관심이 어떠했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다 하겠다. 한편 그는 근래 선비들의 기풍이 타락하고 강학열정이 식어 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 서당의 중건을 통해 향후 유교적 기풍 진작과 사습이 날로 흥기되기를 소망했다.³⁴⁾

그는 평생 처사적 삶을 지향하였듯이 그의 이상은 곧 향리에서의 유교적 덕목 실천과 그 덕목을 보급을 통해 유교문화의 지방화를 이룩하는데 있었다.

다음 장의 시세계에서는 이상에서 기술한 경옥의 처사적 삶이 어떻게 토로되는가를 고찰코자 한다.

34) 『景玉集』, 「沱陽書堂重修記」, pp. 110~114.

IV. 景玉의 詩世界

이제까지 우리는 경옥의 처사적 삶과 어우러진 유자의식을 검토했다. 그는 강직하고 따뜻한 인간미를 갖춘 선비 형상을 구비한 인물이었으며, 시종 유교적 이념에 투철한 유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이러한 선행 검토를 바탕으로 해서 그의 시에서 표출되는 정감의 세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그는 전 생애를 향리에서 보낸 전원 처사였다. 그는 유자적인 입장의 표명을 일련의 산문에서 제시했으며, 이를 문예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전원성에 바탕한 정감을 토로한 시를 다수 남기고 있다.

그의 시는 대개가 전원성에 바탕한 것인 바, 농촌 자연 미물의 우의적 형상화, 자연 경관의 고결미, 향리 농민들의 전원·목가적 삶의 방식, 농민들의 고단한 삶에의 애환 등을 그린 것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농민들의 고단한 삶에의 애환을 그린 것은 그의 시세계가 내면적·정적인 데서 대사회적인 것으로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흡사 퇴계의 경우, 正心論에 바탕한 그의 내적 수양이 외적 현실로 확대되는 것과 유사한 전개방식이다.³⁵⁾ 이렇게 외적 현실에로의 관심 확대는 곧 그의 실천 유자적인 의식과도 일정한 연관이 있다고 본다.

경옥의 시를 분석하기에 앞서 그의 詩作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경옥은 농촌 자연 산천에서 전개되는 물상에서 받은 느낌을 실물 그대로의 모습으로 묘사하고자 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시관이 드러난 시를 보기로 한다.

35) 金泰鴈, 『退溪詩의 한 研究』(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2) 참조.

龍眠³⁶⁾은 物을 닮게 잘 그렸으니
 天機가 붓끝에 옮겨진 것이다.
 조금도 어긋남 없이 그렸으니
 어찌 참과 거짓 분간이나 할 것이라.
 단지 유감되는 건 생기가 모자라는 것
 한갓 모사에 힘쓴 때문일세.
 모사한들 필경 해서 무엇하랴
 위대할손 조화옹이로다.³⁷⁾

경옥은 그림 잘 그리는 宋나라 文人畫家 李公麟을 끌어와 그가 物을 酷似하게 잘 그리는 솜씨로 그려낸 그림도 생명력 없는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하면서, 중요한 것은 생명력 있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 즉 천지 삼라만상 그 자체가 보다 값진 그림이라 하였다.

자연에 대한 이러한 그의 시각은 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 같다. 그는 시에서 추상적인 시어를 난삽하게 나열하여 시를 쓴 경우는 극히 드물고, 주변 자연경관에서 보여지는 삼라만상의 모습 그대로를 시에 즐겨 담아내고 있다.

1. 寓意的 手法의 人間 形象化

경옥은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곤충이나 미물을 우의적 수법으로 즐겨 표현하였다. 먼저 이러한 경향의 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는 농촌에서 쉽게 접하는 곤충이나 조류에 대해 그들에게 일정한 생명력을 부여하고 인격화하여 그들의 속성과 결부된 중의적인 표현을 구사하였다.

36) 龍眠 : 만년에 龍面山에 은거한 宋나라 文人畫家 李公麟의 號.

37) 『景玉集』, 「龍眼」, p. 9. “龍眼善肖物 天機移筆下 既無毫髮爽 寧分眞與假 但恨乏生意 徒爾勤摸寫 摸寫竟何爲 偉哉造化者”.

먼저 ‘반딧불’을 형상화한 시를 살펴보자.

밤중에 설치는 개똥벌레야,
네 모습 유성처럼 반짝이는구나.
비록 한 점 밝기 자랑하지만
어찌 만물까지 비추랴?
태양이 동터 오르면
온 세상 환히 비추게 되리.
그러면 넌 어찌 되겠니?
풀 밑에 숨는게 낫지 않겠니?³⁸⁾

시인은 일개 미물인 개똥벌레가 밤중에 명멸하는 것을 보고는 이처럼 재미있게 시상을 전개하였다. 개똥벌레가 밤이 되어 작은 불빛을 뽐내며 명멸하는 작태를 풍자하였다. 그가 비록 밤에 작은 불빛을 반짝이지만, 새 아침이 되어 태양이 솟아오르면, 그 보잘 것 없는 불빛을 자랑하던 풀이 부끄럽게 되니, 차라리 풀 밑에 숨는게 더 낫지 않느냐는 체근을 하고 있다. 반딧불의 속성과 태양 빛이 대비되어 시에 담겨 있다.

이는 소인배나 험잡꾼의 작태를 두고 우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옥의 유가적 인식이 이 시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파리를 두고 간악한 소인배나 험잡꾼의 대명사로 인식해 온 것과 동일한 발상이다.³⁹⁾ 이 시에서 소인배의 야음을 틈탄 작태는 결국 광명한 태양이 솟아올라 만물을 비추주는 위용에 비해 극히 위축될 수밖에 없음을 대조적으로 보여 주었다. 그런 이면에는 시인의 광명한 세상에서 군주를 상징하는 태양이 광명정대한 정치

38) 『景玉集』, 「螢火」, p. 8. “螢火夜半飛 灼灼如流星 雖誇一點明 安能照物形 大陽從東生 羣蒙煥如醒 螢乎爾何爲 草底甘昏實”.

39) 歐陽修, 「憎蒼蠅賦」, 『古文真寶』. “蠅之爲物, 賦形至微, 害物至重, 猶姦人邪佞, 以敗君德, 變黑白, 以爲物之害, 此詩人托物比興.”

를 구현하여 만물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염원마저 함축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다음은 ‘매미’를 표현한 경우이다.

넌 더러운 땅에서 나왔지만
청량한 하늘로 날아오르네.
울음 소린 음물에 맞고
이슬 마셔 간과 폐를 씻는다지.
진실로 좋게 변화됐으니
어찌 옛날 더러움 생각하리?
이를 듣고 높은 운치 품으니
천추에 감개 무량하구나.⁴⁰⁾

매미의 고결성을 극찬하였다. 매미가 더러운 토양에서 오랜 세월을 인고한 뒤에 결국 애벌레의 탈을 벗고 청량한 하늘로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주시하였다. 매미의 울음 소리가 듣기 좋고, 매미의 음식 역시 청량한 이슬이기에 그의 속성에 찬사를 보냈다. 그의 생래적 배경이 토양이었지만 변화한 이후의 생태가 매우 고결한 속성을 들어 그의 고결미를 추구하리라고 다짐하고 있다.

이 시에서도 경옥의 유자적인 인식이 작용되었다고 본다. 인간이 생래적으로 악한 본성을 지녔을지라도 꾸준한 존심양성을 통해 고결한 인격미를 완성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매미처럼 청량한 음물을 발산하고 운치를 지녀 군자다운 기상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매미에 대한 이러한 표현은 退溪가 말한 “매미는 생물 중에서 매우 청결하여 大賢이 이 생물을 매개로 하여 그같은 인격을 지닌 분을 연상하는 명칭이 되었다.”⁴¹⁾라는 것과는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다.

40) 『景玉集』, 「鳴蟬」, p. 9. “出自糞壤間 飛上清涼界 舍音吐宮商 吸露洗肝肺 諒是善變化 寧念舊污穢 聽此懷高風 千秋增感慨”.

41) 『退溪全書』 I, 「答南時甫」, p. 391. “蟬者 物之至清至潔 而爲大賢 因物懷人之所稱”.

다음 시에는 ‘개구리’를 표현한 것인데, 위에서 ‘매미’를 극찬한 것과 대조적이다.

비 오면 울음 울어
밤새도록 개골개골.
네 울음소리 금석 소리 아닌데
어떻게 음률에 맞겠니?
음란한 울음 귀를 소란케 하고
잠마저 못 이루게 하잖니?
散灰에도 禁條가 있어
옛 성인도 매우 싫어했다지.⁴²⁾

개구리가 비가 오면 울어대는 습성을 들었으며, 그 울음소리가 듣기에 민망하다고 빈정대었다. 개구리 울음소리는 옛 성인들마저 싫어했다며 그들의 속성을 들어 비하하고 있다.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이미 비속하기에 듣는 이로 하여금 거부감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애당초 소양이 부족하고 덕목이 갖추어지지 못한 인간들이 세간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중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그들의 정치적 활동이나 문예 창작 활동 역시 무의미한 것으로 받아 들여 질 수밖에 없다는 여운을 남겨 준다.

다음 시는 ‘제비’를 형상화한 것이다.

나비랑 벌레 물고 대들보를 들고 돌아
네 새끼 먹이느라 종일 왔다갔다 바쁘구나.
네 마음 새끼 배 채우지 못할까봐
긴 여름 내내 네 몸 돌보지 않는구나.

42) 『景玉集』, 「蛙聲」, p. 9. “得雨口便開 徹宵聲相連 既非金石譜 敢擬宮商宣 淫哇亂人耳 喧聒攪我眼 散灰有禁條 昔聖深惡焉”.

새끼 날개 돋쳤다고 기뻐하더니만
 둥지 나와 날갯짓 시키는구나.
 어버이 은혜 장차 어찌 갚으리
 미물인 너의 행실 보니 눈물 난단다.⁴³⁾

시인은 어미 제비가 알을 부화하여 새끼 제비를 부지런히 양육하는 광경을 주시하였다. 부지런히 새끼 제비들의 먹거리를 제공하느라 긴 여름 내내 자신을 돌보지 않는 어버이의 마음을 읽었던 것이다. 게다가 새끼 제비들의 성장 과정까지도 세심히 살펴 이를 시에 담아 내었다. 결국 시인은 눈물어린 어미 제비의 자애심에 감격하였다며 시를 마무리한다.

시인은 비록 미물인 제비의 지극한 자애심을 놓치지 않고 시폭에 여실히 담아 내면서 그들의 속성을 들어 인간사에 일정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어버이의 자식에 대한 무한 애정과 자식으로서의 보은 문제를 은근히 드러내고 있다. 이 역시 유가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다음 시는 ‘참새’를 표현한 경우인데, 풍자적 성향이 강한 작품이다.

가련한 참새야, 추위가 무서워
 저녁엔 추녀 밑으로 날아오는구나.
 허나 추녀 끝엔 그물 쳐 두었고
 저문 하늘 어두컴컴하단다.
 의심 없이 날아들다가
 그물에 걸리면 어떡해?
 들녘에 숲 덩불 너넨하니
 눈보라 몰아쳐도 거기가 낮지 않겠니?⁴⁴⁾

43) 『景玉集』, 「乳燕」, p. 20. “撲蝶含虫繞畫樑 飼雛終日往來忙 若心恐未充兒腹 長夏寧愁餒我腸 稍喜出巢成羽翮 漸憐離屋習翱翔 劬勞恩德將何報 多感微禽爲濕裳”.

44) 『景玉集』, 「寒雀」, p. 7. “可憐汝畏寒 薄暮投屋角 屋角截輕羅 暮天同一色 飛飛自無疑 豈知身反觸 野外足林藪 莫怕風雪惡”.

시인은 몰인정한 인간이 추녀 끝에 그물을 쳐두고 참새가 날아들기를 기다리는 작태를 비아냥대는 한편 추위에 못 이겨 함정의 위협도 모른 채 날아드는 참새에게 충고하였다. 눈보라가 몰아쳐도 숲과 덩불이 무성한 야외가 차라리 안정된 곳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이 시에 강한 자의 횡포와 약자의 연약성이 대비되어 있다. 이러한 시적 구도는 다산 시에 잘 드러나 있다.⁴⁵⁾ 위 시에 강자는 등장하지 않았다. 시인은 약자인 참새의 가련한 행동 양상에 주목하였다. 추위를 못 이겨 인가로 찾아 드는 참새에게 인정어린 눈길을 주시한 시인에게 유자적인 심정이 곡진이 담겨 있다. 惻隱之心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시 역시 경옥의 이러한 연민이 담긴 작품이다.

아침 나절엔 윗 언덕밭 갈았구요,
저녁답엔 아랫 언덕밭 갈았어요.
이렇게 수고하였으니
백 짐은 넉넉히 거들거예요.
그렇지만 싸늘한 콩각지 대접이라니
이렇게 보답해도 되나요?⁴⁶⁾

누런 황소는 우리네 농촌 근로의 역군이였다. 오전엔 윗 언덕배기 밭을 갈아 였고, 오후에는 아랫 언덕을 갈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식단이 서늘한 콩각지 대접이라며 푸념하는 황소를 형상화하였다. 시편에는 황소만의 독백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 이면에는 박대한 농부의 전형이 담겨 있다.

주인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는 누렁 황소를 형상화했다. 산간 밭이라 부지런한 누

45) 宋載邵, 『茶山詩 研究』(創批社, 1986) 및 金相洪, 『茶山 丁若鏞의 文學研究』(檀國大學校 出版部, 1991) 참조.

46) 『景玉集』, 「耕牛」, p. 10. “朝耕上原田 暮耕下原田 服勞良已多 收禾可百塵 草草其豆冷 酬功寧稱施”.

령 황소도 여간 힘겹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먹여 주는 것이라고는 싸늘한 콩깍지뿐이라며 애쓴 근로에 대해 충분한 보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꼬집고 있다. 이 역시 풍자성이 강한 작품이다.

여기서 몰양심적인 주인네는 당대 우리 사회의 지배 계층을 의미하며, 누렁 황소는 착취에 일그러진 민중의 형상인 셈이다. 시인은 묵묵한 누렁소의 항변을 들어 착취당한 채 구겨진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약한 자의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시인 경옥의 측은지심이 이 시에서도 여전히 발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조선 후기에 대거 창작된 일종의 사회시 계열과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듯 경옥은 농촌 주변의 미물인 반딧불, 매미, 개구리, 참새, 제비, 황소를 인격화하여 말 못하는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표현하였다. 경옥은 미물의 속성을 들어 그들의 심정을 솔직히 표현하여 선악간 인간군상들의 형상화를 시도하였으며, (반딧불, 매미, 개구리), 미물인 참새, 제비, 황소를 들어 이들과 대척된 입장에 선 인간에게 모종의 훈계를 제시하였다.

이런 점에서 경옥의 문예 미학이 돋보이고 있다. 그 미학은 성리학 문화가 요구하는 규범화된 인격미와 규범화된 자연미의 통일성을 지향한다.⁴⁷⁾ 말하자면, 이는 우의적 수법을 통한 인간 유형의 형상화로 인간사에 교훈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의 유자적 인식의 기반 하에 도출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 自然 景觀의 高潔美

이해 분석할 시는 농촌 자연 경관에 드러난 고결한 멋이 구현된 작품들이다. 오염되지 않는 자연 경관과 평화로운 농촌 정경이 어우러진 작품들 속에서 경옥의 유가적 인생관이 제시되어 있다.

47) 李鍾虎, 「退溪美學의 基本性格(上)」, 『退溪學』 創刊號(安東大學校 退溪學研究所, 1989), pp. 141~148 참조.

먼저 매화의 고결성을 주목한 작품을 보기로 한다.

묵은 뿌리 이끼 갑옷 되었고
찬 가지에 흰 꽃 피었네.
검은 구름 뒤덮혀도 물들지 않고
밝은 달 외로운 매화 비추네.⁴⁸⁾

시인은 매화가 활짝 핀 광경을 주시하였다. 起句와 承句는 흑백의 색감이 대조를 이룬다. 매화의 뿌리와 곱게 만개한 매화의 고결미가 한층 돋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결미는 검은 구름 마저 침노할 수 없고, 결국 고상한 멋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는 낮을 이은 저녁까지 그 멋적인 신비가 지속된다. 밝은 달빛 내린 아래 매화의 자태는 시각적 심상이 드러나며 정적감마저 감들게 된다.

그러면서 고고한 선비의 형상을 느끼게 한다.⁴⁹⁾ 선비는 세속의 더러움에 쉽게 물들지 않는다. 그의 교양과 품격, 지조가 빼어나기 때문에 속기가 쉽사리 그를 넘볼 수 없다고 하였다. 매화의 고결성에 단아한 선비의 전형을 결부시킨 작품이다.

다음 시 역시 이러한 정서에 바탕한 시로 마음의 고결함을 읊은 것이다.

골짜기엔 흰 얼음 열고
산 위엔 고운 달 오른다.
작은 창엔 흰빛 채색 나눠어 비치며
길이 텅빈 마음 비추이네.⁵⁰⁾

계절적으로 겨울인 것 같다. 골짜기에 흰 얼음이 얼 무렵 동쪽 산봉우리엔 달이

48) 『景玉集』, 「墨板白梅」, p. 37. “根老苔成甲 枝寒雪作花 玄雲埋不染 白月照孤槎”.

49) 안동 선비 문화 형성 배경은 吳錫源의 「安東 선비文化의 形成 背景과 現代의 意義」, 『安東의 선비文化』(亞細亞出版社, 1997) 참조.

50) 『景玉集』, 「東峯待月」, p. 38. “皓皓冰生壑 娟娟玉上岑 小窓分素彩 長自照虛襟”.

곱게 솟아오르고 있다. 시인이 앓은 골짜기 창가엔 얼음에 반사된 빛과 달빛이 교차하여 평온한 시인을 비추인다고 하였다. 고요한 분위기 속에 진전되는 달 오름은 시인의 평온한 마음을 더욱 차분하게 하였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結句의 텅 빈 마음의 상태를 유지한 시인이다. 겨울철의 한기 속에 강직한 심상이 드러난 시이다. 얼음이 얼고 달이 오른 겨울 밤의 서정이 시인의 텅 빈 마음을 유도하기에 이르렀다. 시인은 길이 평온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本然之性을 체득한 마음의 평정 상태와 다름 아니라고 본다. 이 시에서도 경옥의 유가적 심미관이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이 시는 현상적 만물을 매개로 하여 투명하고 정적인 하늘의 영상이 융해되어 내면화된 것으로, 결국에 이르러 자아에게로 내면화된 것이다.⁵¹⁾

다음 시 역시 매화의 고결한 자태를 들어 표현한 것이다.

짧은 가지 소나무 울을 두르고
우뚝한 매화나무 서있네.
꽃인지 눈인지 분간 못하는데
눈이 가지에 가득 내린 듯 하이.⁵²⁾

이 시에서도 시인은 색감을 고려하였다. 起句의 청색과 承句의 백색은 전체 시상을 매우 산뜻하게 해준다. 짧은 매화 가지와 소나무 울타리는 서로 정겹게 어울리고 우뚝한 지조의 매화는 보는 이로 하여금 눈이 내렸을 만큼 흰 자태를 드러내었다. 이러한 매화는 處士·貞士로 암시되며, 隱逸君子로 표상된다.⁵³⁾ 매화의 속성처럼 고고한 인간상을 표현하고 있다. 어쩌면 이 고고한 품성의 매화는 경옥의 이상

51) 李東歡, 「晦齋의 道學的 詩世界」, 『李晦齋의 思想과 그 世界』(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92), p. 176.

52) 『景玉集』, 「詠梅」, p. 38. “短短松籬繞 亭亭玉樹孤 不知花似雪 錯道雪盈株”.

53) 金泰鴈, 「退溪詩의 한 研究」(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2), p. 73.

향일 수 있다. 경옥은 이미 전기적 고찰에서 살폈듯이, 강직하고 고고한 선비의 전형성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추론은 가능하다고 본다.

다음 시는 소나무의 이런 심성을 읊은 작품이다.

무수한 세월 흘렀고
술한 눈비도 맞았으리.
늦게 시드는 절개는 남았으니
백년 동안 추위에 견뎠다지.⁵⁴⁾

시인은 고개 마루에 우뚝 서서 모진 세월 추위와의 싸움에서忍苦하는 소나무에게 시선을 주목하였다. 술한 세월의 흐름 속에 추위가 닥쳐와도 독야청청하다가 못 나무들보다 오래오래 그 굳센 절개를 유지하는 소나무의 형상에 감탄을 발하였다. 굳센 소나무의 절개를 읊되, 조용한 시상을 전개하였다.

이는 「歲寒然後，知松栢之後凋」를 연상케 하는 작품이다. 이 시 역시 경옥의 유가적 심미관이 투영된 작품으로, 굳센 절개를 지닌 인간상을 그려 본 것이다. 이는 곧 경옥 자신의 인간상이기도 하다.

결국 이러한 고고하고 강직한 인간상을 추구하던 경옥의 심미관은 다음 시에서 인간사의榮辱이 간여 할 수 없는 경지까지로 몰입케 한다.

푸른 물 돌아 거울 되었고
푸른 산 에워싸 성을 이루었네.
영광과 괴로움 이르지 않는 곳
발갈고 낚시하며 편안하여라.
바위 위 잣나무 가지 드리웠고
물가 연기는 맑고도 가벼워.
이 가운데 일 없으니

54) 『景玉集』, 「嶺松」, p. 39. “歲月絲苓老 乾坤雨雪深 後凋貞節在 寒苦百年心”.

오래오래 만물이 상큼하리라.⁵⁵⁾

거울처럼 맑은 물은 시인의 심정만큼 깨끗하고 투명하며, 세상의 영욕이 이르지 않도록 산이 성을 이루었다고 하였다. 그러기에 밭 갈고 낚시하여 여유있는 생을 만끽하는 삶이 지고한 것이다. 이어 시인의 시선은 허공 높이 솟은 바위 위에 잣나무로 향하였다. 이 잣나무의 굳고 곧은 형상은 곧 시인의 결백한 이미지를 투영함이라 할 수 있다.

물가에 위치한 오두막의 연기는 적막하고 한아한 전체 시상에 완만한 변화를 준다. 그렇지만 평온한 자연과 시인의 심상은 여전히 지속되어 만물이 오래오래 상큼한 자태를 발할 것이라며 확신하고 있다. 위의 시에서 ‘이 가운데 일 없으니 오래오래 만물이 상쾌하리라’는 경지는 결국 人欲의 私를 물리치고 天理를 보존하는 성리학적 수양의 높은 단계에 이르렀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⁵⁶⁾

그의 유자의식은 다음 시에서 광풍제월의 상태로까지 몰입하기에 이른다.

바위 구멍에서 솟는 샘 여울을 이루어
정원 연못 만드니 물결조차 차갑네.
밤에 개인 달을 사랑하여 마음에 새기고
새벽 광풍은 사랑스레 비단 물결 같구나.
두 손으로 움키니 뼈속까지 스미고
한 사발물에 세수하니 얼굴이 차갑구나.
맑은 새 거울처럼 사람을 밝혀주니
이것으로 사람 마음 볼 수 있다네.⁵⁷⁾

55) 『景玉集』, 「題伯氏巖山江舍」, p. 16. “綠水洄爲鏡 靑山擁作城 榮枯不到地 耕釣可安生 巖栢垂垂老 汀烟淡淡輕 箇中無一事 長管物華淸”.

56) 宋載邵, 「晦齋의 自然詩」, 『李晦齋의 思想과 그 世界』(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92), p. 216.

57) 『景玉集』, 「題洛阜草堂小池」, pp. 18~19. “巖竇飛泉噴作灘 半庭囚得玉流寒 夜憐霽月當心印 曉愛光風拂錦瀾 雙手掬來淸到骨 一盂洗罷冷生顏 炯然新鑑些兒淨 這樣襟懷此可看”.

위 시에서 주목되는 것은 유가에서 청정한 심정의 상태로 표상된 ‘光風’과 ‘霽月’이 시어로 채용되고 있는 점이다. 경옥은 샘물을 끌어들이 연못을 만들었는데, 그 연못의 청정한 상태를 사랑하였고, 세수하면서 마음을 밝히는 요체를 터득했다고 한다. 산뜻하고 맑은 연못은 외부의 유혹이나 명리를 초극한 인간의 심성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이면적 의미를 제시해 주고 있다.⁵⁸⁾ 잔잔한 연못의 상태는 기질 지성에 의해 본연지성이 일그러질까를 염려한 퇴계의 심상과 일치한다.⁵⁹⁾

이상의 시 분석에서 경옥은 평온한 자연 경관에서 매화의 고결미와 소나무의 절개, 그리고 그러한 자연 속에서 유행되고 있는 天理를 파악하고 내면화하여 자연합일을 이룬 상태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런 점에서 경옥은 퇴계의 학풍을 이은 처사 지향의 미의식을 소유하고 이를 체득했던 것으로 보인다.

3. 農村의 牧歌의 情緒

경옥의 시에서 다소 낭만 정조가 엿보이는데, ‘한가한 풀밭’과 ‘누렁 황소’가 그것이다. 실제 황소의 등에 타고 다니는 것을 다룬 시도 여러 편 보인다. 이러한 정서는 「牧庵記」에 집약되어 있다. 이 記文은 경옥이 친구가 臨河縣 북쪽 산기슭에 모친상을 당해 3년의 여막 생활을 마치고 그곳에 초당을 지은 뒤 소가 초원에서 풀을 뜯는 모습을 지켜보는 목동의 심정으로 은거하는 것을 보고 지어준 것이라고 한다.⁶⁰⁾

58) 이 외에 경옥은 다음 시에서도 하늘의 변이인 천둥·우뢰·격한 비는 人君의 부덕에 기인하니, 검속하고 근신하여 하늘의 재앙을 면해야 한다고 역설한 데서도 동일한 유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景玉集』, 「己未十月夜半大雷雨」, p. 28. “忽然半夜一聲雷 急雨顛風勢壯哉 掀屋却愁茅盡捲 撼山遠訝石爭摧 不知聖世緣何闕 致使皇天出此災 自是消弭由克享 乾心佇見敬能回”.

59) 『退溪先生年譜』 卷之一, 「年譜」, “有遊春詠野塘一絕云 露草天天繞水涯 小塘清活淨無沙 雲飛鳥過元相管 只怕時時燕蹴波”.

경옥은 그가 隱居自樂하는 연유를 묻자, 친구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는데, 그의 답변 가운데 목가적인 즐거움이 드러난다.

일찍이 나[景玉]를 방문하여 마음껏 즐기기를 그치지 않았는데, 내가 웃으며 묻기를, “무릇 사람들이 사물을 취하여 정자 이름을 붙일 때면 반드시 칭고하고 기이한 사물을 취해서 들어맞는 것을 가려 뜻을 붙이거늘, 저 소는 畜物 중 어리석어 무지한 놈이며, 牧은 촌 아이가 소 등에 올라타서 피리 부는 것 일뿐인데, 지금 그대는 어찌하여 이러한데서 취하여 벽에다 시와 그림을 걸어놓고, 또 정자 이름을 삼았는가. 또한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가?”

牧叟가 웃으며 말하기를 “아! 그대가 내가 아닌데 어찌 나의 즐거움을 알리오(장자와 열자의 문답). 내 장차 나의 즐거움을 말하리라. … 또한 내 재주가 보잘 것 없으니 밝은 시대에 버려진 사람이 되어 丘園에 엮드려 숨어 천지간에 한가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하여) 앉아있을 때도 명하니 있고(장자 제물론) 걸어다닐 때도 외로이 걸으며 四肢를 게을리 하고 耳目을 닫아버려, 한가지 일도 나의 일로 삼는 것이 없다. 때때로 소를 이끌고 나가 남쪽 물가에 풀어놓으면 소들은 싱싱한 풀과 맑은 샘물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나는 곧 나무에 기대어 눈을 감아 정신은 沖漠한 곳에 노닐며 꿈은 화서의 나라(잘 다스려져 있는 나라)에 들어 소인지 목동인지 알지 못하여 둘 다 서로를 잊어버린다. 날이 저물어 소들이 돌아오니 산 노을과 시내 바람, 안개 낀 도롱이와 비 맞은 샷갓이 나의 마음을 맑게 하여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함이 없다네. 이것이 내가 牧으로써 자호하여 그 즐거움을 온전히 하였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산뜻한 느낌으로 마음에 깨달아 말하기를 “목수의 즐거움이 과연 이와 같이 진실되구나.”⁶¹⁾ 하였다.

60) 『景玉續集』, 「牧庵記」, pp. 280~281. “沙月 在臨河縣之北可一舍許 兩峽如束 一溪中注 迫然作一洞府 居民數百家焉 緣溪兩岸 鱗比成村 村後一小麓 卽余友牧叟金正正先妣壽兆也 叟丁憂時 嘗守廬於山下 過三霜焉 服闋 因其廬拓而大之 闢外齋三間 以爲遊息之所 取牧叟二字以自號 令其阿咸正言君書古人牧牛詩 若爾 首於壁 取詩意作畫 係之于下 滿壁皆是九十來斯之狀 叟頽然其中 日寓目而自樂焉 吟一絕以志之”.

61) 『景玉續集』, 「牧庵記」, pp. 281~282. “嘗過余而津津不已 余笑而問之曰 凡人之取物而名軒者 必取清高奇異之物 以取適而寓意焉 夫牛畜物之蠢而無知者 牧乃村童之臥背橫笛者之事耳 今子何取於是 而詩之畫之壁而揭之 又軒而號之歟 抑有說耶 叟輒然而笑曰 噫 子非

이렇듯 경옥은 목가적인 농촌 정서에 깊이 젖어 있었다. 이 예문이 비록 경옥 친구의 답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경옥의 은거자락하는 멋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기에 경옥은 시편 곳곳에 이와 연관된 시를 형상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해질 무렵 백사장 소등 타고 졸며 건너는데
 석양 긴 강가엔 그림자 빗기네.
 이 몸이 桓客은 아니지만
 南山 白石歌 즐겨 부른다네.⁶²⁾

시인은 소등을 타고 백사장을 건너고 있다. 석양 무렵 강가엔 그림자가 길게 비치고, 비록 시인 목객은 아닐지라도 백석가를 유쾌히 부른다고 하였다. 냇가 고기잡이 놀음을 파하고 소등을 타고 귀가하는 시인의 멋과 흥이 표현되어 있다. 적당히 술에 취한 시인이 석양 무렵에 소등을 타고 백사장을 지나는 풍경을 그려내었다.

이런 고즈넉한 시상은 다음 시에도 마찬가지로 전개된다.

저녁 연기 푸르게 피어오르는데
 목동이 피리 불며 풀밭길 내려오네.
 태평한 세상 무한히도 즐거우니
 걸음 가는 대로 맡겼구나.⁶³⁾

我 安知我之樂 吾且言吾之樂 (중략) 且我樸蕪無才 爲明時棄物 踰伏丘園 作天地間一閒人 坐則嗒嗒然 行則蹢蹢然 惰肢體閉耳目 而無一事更爲吾之事者 有時牽牛而出 放之南澗之濱 草肥泉清 且飲且齧 我乃倚樹而暝 神遊於沖漠之域 夢入於華胥之國 不知牛歟牧歟 兩相忘之 日之夕矣 濕濕下括 則山靄溪風烟簑雨笠 莫非清我之心 而爲我之樂矣 此吾之所以以牧自號 而自全其樂者也 余聞之 灑然而醒于心曰 叟之樂 果若是其眞哉”.

62) 『景玉集』, 「大林漁會騎牛醉歸」, p. 40. “牛背閒眼渡晚沙 夕陽江路影欹斜 此身不是要桓客 肯唱南山白石歌”.

63) 『景玉集』, 「聞前郊牧笛」, p. 39. “弄去烟蕪綠 吹來草逕斜 太平無限樂 牛背一任多”.

저녁 연기 피어오르는 농촌의 저녁녘이다. 풀을 다 먹인 소등을 타고 비탈길을 내려오는 목동의 피리 소리는 흥겹기 그지없고, 정한 곳도 없이 소가 가는 대로 몸을 내맡긴 형상을 시에 담아 내었다. 평화롭고 고즈넉한 정서를 담뱃 담고 있다.

다음 시는 비 그친 산촌의 화폭같은 정경이다.

안개가 산을 두르고 비가 들판을 적시자
푸른 시냇가 고운 풀 넷물따라 파릇파릇 하여라.
해 기운 주막엔 황혼이 깃드는데
들밥 나르는 아이 돌다리 건너네.⁶⁴⁾

비 온 뒤의 산촌 정경이다. 산안개가 피어오를 즈음, 한 줄기 비가 산촌을 지난 뒤에 하늘의 맑은 햇살은 온 산천을 산뜻하게 씻겨 준다. 시인은 황혼이 깃들 무렵, 주막에서 냇가로 시선을 옮기게 되어 문득 들밥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돌다리를 건너는 아이를 주목한다. 아직도 해가 완전히 기울기엔 다소 이른 시각이다. 비 그친 오후의 들녘은 갑자기 일손이 바빠졌을 것이고, 해가 기우는 것도 농부들에겐 그다지 문제가 되질 않는다.

아이가 해 질 무렵 들일에 열중하는 식구들에게 새참을 날라다 주는 것이리라. 아이가 가는 그쪽엔 그의 가족들이 진땀을 흘리며 농사일에 열중할 것이다. 이 아이는 그런 가족들의 푸근한 정을 모두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안동 박실마을을 읊은 시로 외진 동네의 정서를 보여준다.

마당엔 닭이 모이 찾고 울타린 개가 짖는데
서너 집 촌락에 석양이 비칠 때일세.
늙은이는 길손 보고 묻기를

64) 『景玉集』, 「宿南溪里」, p. 40. “淡霧籠山雨洗郊 緣溪芳草綠迢迢 日斜野店黃昏近 送飯隣兒渡石橋”.

속세엔 秦나라·漢나라가 몇 번이나 바뀌었나요.⁶⁵⁾

마당에 모이 찾는 닭. 울타리 가에 짓어대는 개는 우리네 시골 정경 그대로를 담은 화폭과 다름 아니다. 석양 무렵, 서너집에 모여사는 벽촌을 찾은 길손에게 늙은이는 그 동안의 세상 변화를 묻고 있다. 이 벽촌이 그만큼 세상사와 동떨어져 있음을 은연 중에 드러내 보인 것이다.

이런 시상은 다음 시에서 좀더 긴장되어 표현된다.

문 앞에 길손이 찾아 들자
주인은 반가이 맞이하네.
울타리 밑에서 으르렁거리는 개
사납게 짓어 대는 성깔 양칼지구나.
길손이 손 휘저으며 가 버리자
주인은 발끈하여 얼굴 붉힌다.
도둑 지키는 것이 네놈 직분이어늘
손님보고 짓는 건 무슨 심보더냐?⁶⁶⁾

전통적 우리의 농가 모습이다. 극히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을 대화체로 표현했다. 울타리 밑에서 졸던 멍멍이놈이 집에 든 웬 길손에게 성깔을 부려 급기야 주인 나리에게 혼줄이 난다. 주인은 찾아오는 길손이 반갑기 그지없어 황급히 맞이하려고 했지만, 연유를 모르고 냅다 짓어 대는 멍멍이놈 때문에 일을 망쳤다. 길손이 떠난 무대엔 주인과 멍멍이만 남았다. 주인의 화난 얼굴, 멍멍이의 민망해 하는 모습만 여운으로 남는다.

65) 『景玉集』, 「朴谷村」, p. 45. “雞啄場頭犬吠籬 數家村店夕陽時 老翁見客來相問 塵世羸劉幾變移”.

66) 『景玉集』, 「吠犬」, p. 10. “門前客下馬 倒屣主人迎 猗然當籬竇 逆吠性頗犇 客子揮手去 主人駢顏生 警盜乃爾職 吠客復何情”.

다음 시에서는 근로하는 농민의 형상을 담았다.

이른 아침 풀 베어 산을 오르니
새벽빛 몽롱하여 마을조차 분간 못해
저녁에야 풀 베어 산을 내려오니
마을엔 집집마다 사립문 닫네.
풀 위의 이슬 적삼을 적시고
풀 사이 모기들 양 다리 쏘아 대네.
험한 돌길에 진흙마저 미끄러운데
무거운 짐에 지친 몸 넘어지기 일쑤지.
문노니, 풀은 베어 어디 쓰려뇨?
가을엔 보리농사 봄엔 벼농사 위함일세.
나락가리 산 같고 보리 더미 구름 같아
추수한 곡식 창고에 넘쳐 나리라.⁶⁷⁾

풀 베는 농부의 건강한 삶이 돋보인다.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풀베기는 어둑해질 무렵에서야 끝맺음된다. 특히, 중반부에서는 풀베기에 지친 농부의 모습이 절실히 표현되어 있다. 이슬에 젖은 적삼, 달려드는 모기떼, 돌길과 진흙길은 지친 그의 짐을 더욱 무겁게 느끼게 한다. 그러나 우리네 농부는 전혀 구김살이 없다.

도리어 한여름 땀방울의 인고는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소망한다며 자신있게 답한다. 퇴비는 가을 보리와 벼농사의 밑거름으로 토양을 기름지게 할 뿐 아니라 풍년을 위한 농부의 알뜰한 살림 밑천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경옥은 농촌의 잔잔한 목가적 정서를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개와 닭이 울며 부산한 농촌의 면모와 땀 흘리며 근로하는 농민을 시적으로 형상화하였음을 살필 수 있었다. 이러한 형상들은 경옥의 향촌에 대한 애착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67) 『景玉集』, 「折草」, p. 13. “朝折草上山阿 曉色矇矓迷宿莽 暮折草下山阿 里巷家家局外戶 草頭濃露濕短衫 草間惡虫螫兩股 石逕嵯嵯泥又滑 負重身疲或顛仆 問汝折草何所爲 秋爲種麥春秔稌 秔稌如山麥如雲 收聚穰穰滿倉庾”.

다. 이는 그가 태어나고 자라며 뼈를 묻을 곳이기에 유별했다. 그래서 그는 농촌의 전원 생활이 매우 값진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그에 따라 농촌 자연 풍광을 애호하였다. 그리하여 그가 농민들에 대한 애정의 시각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옥의 농촌 정서는 급기야 농민들의 삶의 고단한 현장을 주목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4. 農民에 對한 愛民 情緒

경옥의 향리 농촌 민초들에 대한 관심은 점차 대사회적인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기에 경옥은 천재지변인 한해에 의해 고통 당하는 그들을 도외시 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경옥의 애민 정서는 실천 유학자적인 면모의 일면이기도 하다.

먼저 가뭄으로 인해 고통 당하는 농민들을 주시한 작품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을 거쳐 겨우내 눈비 오질 않아
길가엔 먼지만 자욱하다네.
마른 보리싹 생기 없고
샘마저 바닥 나 마실 물 없구나.
모진 바람 고목에 몰아치고
주린 새는 마른 이끼 쪼으네.
세상만사 모두 삭막하니
그 언제 좋은 시절 올거나.⁶⁸⁾

시인은 모진 가뭄이 계속되는 동안 그 여파가 도처에 미쳤음을 알리고 있다. 길가에 먼지 일고, 보리싹은 말라 생기가 없다. 마른 샘, 모진 바람, 주린 새 모두는

68) 『景玉集』, 「馬上口吟」, p. 18. “秋冬慳雨雪 行路漲塵埃 枯麥無生意 乾泉不滿杯 淒風號占木 飢鳥啄殘苔 景色還蕭索 陽和幾日來”.

암울한 상태를 나타내 주는 시적 구도이다. 그리하여 시인은 이같은 투쟁의 고통이 보다 빨리 극복될 수 있기를 비는 간절한 심경으로 좋은 시절 도래하길 빌며 농민의 고통을 위로하고 있다.

여기서도 미물에 대한 경옥의 관심은 여전하다. 주린 새가 마른 이끼를 쪼는 광경을 포착했던 것이다. 그의 애민 정서가 인간 및 미물에까지 확대되었음이 재확인되고 있다.

다음 시는 도토리가 구황 식품으로 애호되고 있음을 기뻐한 시인데, 그의 애민 정서가 각별히 드러남을 살필 수 있다.

상수리 숲의 가을 열매 서리 맞아 떨어지니
금구슬 같은 도토리 알맹이 광주리에 줍네.
떨나무 태워 문드러지게 삶고
소금 콩 함께 넣어 짙으니 그 맛 간간하여라.
흉년들어도 난 부자 같으니
또 가난한 집마다 저마다 양식 있어 기쁘다네.
굴이랑 명자 열매 맛있다 말 마오
사람 살리는 도토리 콩 고량진미 못하잖소.⁶⁹⁾

시인은 도토리 열매를 삶고 짙어서 소금·콩을 곁들여서 구황식품으로 활용하는 흉년 대안에 대해 매우 기뻐하였다. 굴과 명자 열매가 비록 일시적으로 미각을 자극할 지라도 흉년을 넘기는 구황식품 도토리에 비할 바가 아니며, 도토리를 농민들의 기근 대안으로 동일시하여 시적으로 형상화하였다.

경옥의 이런 애민 정서는 산문 「藥院重建記」에도 엿보인다. 「藥院重建記」는 고을의 약원이 허물어져가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이를 주선해서 중건할 도리가 없었는데, 金台甫가 이 일을 주관하여 부역을 동원하고 근방의 인부를 모아 중건했음을

69) 『景玉集』, 「橡實」, p. 19. “橡林秋實坼霜房 箇箇金丸拾滿筐 燕盡車薪烹欲爛 搗和鹽豆味堪嘗 不虞饑歲吾方富 且喜窮村各有糧 綠橘甘楂君莫道 活人功可比膏梁”.

강조했다. 전반부에는 이것의 증견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였고, 후반부에서는 이 약원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애민·경세적인 심정을 표현했다.⁷⁰⁾

다음은 농민들의 참상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대표적인 三歎詩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汲兒歎」에서는 물길고 나무하는 여아들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표현하였다.

앞 냇가 뽕뽕 얼어붙었으니
물길는 아이 수심으로 숨이 끊어질 듯.
언 손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데
북풍은 어찌 그리 매서운지요.
질동이는 얼음판에 자빠져 깨어졌고
배치마는 바람결에 찢어졌구나.

솔바닥엔 먼지만 일어나고.
찬 부엌엔 연기마저 피지 않네.
독엔 남은 건 싸라기 한 줌
멀건 죽은 손가락에도 걸리지 않아
배주림에다 추위까지 견뎌야 하니
내일 또 마찬가지일테지.
세상살이 이렇게 괴로울 바에야
일찍 못 죽은 게 한이라네.

어떻게 용면의 손을 빌려
이 사정 그려 하늘님께 올릴꼬?⁷¹⁾

70) 『景玉集』, 「藥院重建記」, pp. 95~96. “今金君仰體柏亭之意 於數百載之後 重建院舍 振刷頽廢 使聚之蓄之之有所 和劑澡雪之得其方 一境之痒痾疾病者 取用如水火 以免夫扎瘡夭殤之患 則金君之功 豈在柏亭下哉 昔范文正公嘗曰 願學醫以救人 君子之存心於濟物 如此其至也 今金君之心即濟物之心也 如使繼金君而爲任者 又以金君之心爲心 則其聚藥救人之功 豈獨被一方而止哉 抑亦聖世濟民仁壽之一助也 夫是爲記”.

71) 『景玉集』, 「汲兒歎」, p. 12. “前溪凍不流 汲兒愁欲絕 阿手不勝寒 北風何更烈 陶甌倒水碎 布裙吹幅裂 釜乾塵欲生 廚冷烟未起 窄糠僅盈掬 稀粥難縮匙 忍飢又忍寒 明日復如是 人

시인은 물길는 여아의 고달픈 삶을 주시했다. 이 시는 모두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첫째 단에서는 냇가에 물길으러 가서 당하는 곤란을 묘사했다. 뽕뽕 얼어붙은 강물, 북풍, 깨어진 질동이, 찢겨진 삼베 치마 등 여아 혼자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모진 현실이다. 둘째 단에서는 더 궁핍한 정경이 벌어진다. 멀건 죽으로 연명하면서, 기아와 추위라는 이중고를 겪는 것은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다는 탄식을 자 아내기에 이른다.

결국 이 난제는 셋째 단에 가서야 해결된다. 그 해결이란 유명한 화가 용면을 불러 이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그려 하늘에 올려 호소해 보리라는 자위로 마무리된다. 여인의 독백 이면에는 주림과 추위에 얼룩진 체념과 아픔이 스며 있다.

다음으로 「樵兒歎」은 나무하는 아이의 슬픈 고백을 토로한 시이다.

나무하는 아이 새벽 산을 오르는데
 산길은 얼음과 눈으로 매끄럽구나.
 짚신은 가시에 찢려 뚫어졌고
 옷은 돌부리에 걸려 찢어졌네.
 다리는 후들거려 넘어질까 두렵고
 손은 뻣뻣하여 나무 줍기도 어렵구나.
 나무를 주었건만 짐을 채우지 못해
 집에 오자마자 주인 나리 경을 치네.

어젠 바람이 몹시도 거세더니
 오늘은 눈발마저 훑날리누나.
 날마다 이같이 매서운 날씨
 어느 날에야 추위가 풀리려나.
 허리에 낫 차고 다시 산을 오르자니
 억지로 노래 불러도 흥겹지 않네.
 노래 가락 흥겹지 않고 속만 타니

生此爲苦 惟怨不速死 安得龍眼手 圖上天門裏”.

아, 슬프고도 서러운 신세.⁷²⁾

나무하는 아이의 고단한 삶의 탄식이다. 작중 화자는 엄동설한에 땀감을 구하러 새벽산에 올라간다. 눈 내린 겨울 산이 결코 낭만스럽지 않다. 뚫어진 짚신, 찢겨진 옷은 나무하는 아이의 고난을 가증시킨다. 그나마 간신히 땀감을 주워 왔건만 주인 나리의 안목에 차지 않아 불호령을 당하고 다시 등산해야만 하는 서러움이 후반부에 집약되어 있다. 아이는 눈발을 무릅쓴 채 허리에 낫을 차고 다시금 등산한다. 주인네의 학대에 시달리는 종 아이의 서러움이 강하게 전해진다. 서러움에 복 받힌 나머지 노래나마 불러 속사정 털어 버리려고 해도 역시 흥겹지 못하고 도리어 속만 탄다며 한탄한다. 여기서 주와 종의 관계 속에서 주의 일방적 횡포에 잔인하게 억눌리는 종의 서러움을 읽어 낼 수 있다.

경옥은 농민들의 소박한 삶에 대해 강한 애정을 지녀 여러 수의 田家詩를 남겼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산촌민들의 고통 하소연을 시로 집약한 점이다. 이는 당대 사대부들에게서 그리 흔하게 발견되지 않는 점이다. 「汲兒歎」이나 「樵兒歎」은 매우 사회성이 두드러진 작품이다. 특히, 「나무하는 아이의 탄식」은 18세기 申光洙(1712~1775)의 「나무하는 소녀(採薪行)」⁷³⁾에서 맨 발로 나무하던 여종이 차들에 부딪쳐 다리에는 피가 흐르고 낫마저 부러뜨려 주인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고 서러움을 하소연하는 것과 동일한 시상의 전개이다.⁷⁴⁾

이러한 경옥의 애민정서는 가뭄 극복을 위해 수맥 찾느라 기진맥진한 농민들을 소재로 하여 쓴 「久旱歎」에서 총 집약되고 있다.

72) 『景玉集』, 「樵兒歎」, pp. 12~13. “樵兒曉入山 山路水雪滑 草履鍼棘穿 石角鉤衣裂 脚溢畏顛仆 手凍艱採薪 採薪不滿擔 歸遭家長嗔 昨日風正惡 今日雪又飛 日日每如此 何日寒解圍 腰鎌復上山 強歌聲無權 聲無權意甚苦 嗚呼足悲酸”.

73) 申光洙, 「採薪行」, 『石北集』 卷1, “貧家女奴兩脚赤 上山採薪多白石 白石傷脚脚見血 木根入地鎌子折 脚傷見血不足苦 但恐鎌折主人怒 日暮戴薪一束歸 三合栗飯不饑飢 但見主人怒 出門潛啼悲 男子怒一時 女子怒多端 男子猶可女子難”.

74) 이 시에 대한 分析은 林熒澤, 『李朝時代 敍事詩』[上](創批社, 1992), pp. 162~163 참조.

그 해가 黃鼠(戊子, 1708)年 이었는데
일년 내내 비가 오질 않았다네.
봄 여름에 비록 조금 내렸으나
바라는 만큼 넉넉하진 않았다네.
유월에 가랑비 내렸으나
칠월에는 전혀 비 없었다네.
팔월과 구월 사이
빗물 몇 방울 내렸고
10월 거쳐 동지달 이르도록
비와 눈도 내리 잦았지.
늦겨울에 이르러선 더 심해져
가뭄이 한결 같았다네.
천지에 물기라곤 사라져
강과 하천도 말라 버렸네
계다가 작은 시내 계곡도
바닥 드러나 먼지만 날렸다네.

마을마다 목 마르다 부르짖으니
산민들 불쌍도 하여라.
조석으로 단지 지고
삼 매고 수맥 찾느라 야단일세.
시내 가운데 몇 자를 뚫었으나
얼어붙어 돌을 쪼는 듯하네.
한 줌 물이라도 얻으면
다투어 목을 축이네.
물을 움키면 이내 마르니
사발물이라도 긴기를 바라네.
가마솥에 부을 물 없으니
어찌 끼니를 이으랴?
씨늘한 바람 매섭기 칼날 같이

날마다 사납게 불어오네.
손발이 동상으로 갈라져
온몸 성한 곳 없네.
목이 타고 추위까지 겹쳐서
참으로 그들이 불쌍하여라.

일찍이 들건대 풍년에는
콩과 조 물처럼 천하다던데
지금은 천하다던 물이
콩과 조보다 더 귀하다고.
또 들건대 오행지에서
홍수 가뭄 번갈아 온다더니
올해 만일 하늘이 마르면
내년에는 반드시 장마가 진다 했지.
극한 갓춤과 결핍은
모두 농사에 해악이 된다네.
홍범편에서도
양극은 모두 흉하다 했네.
사람들 말에도 가을 겨울 가물면
응당 다음 봄 여름도 가물다 했으니
봄 여름이 이와 같다면
백곡을 어찌 뿌릴 수 있으리.

풍년과 흉년을 알 수 없으니
임금님과 신하들에게 고루 묻고자 하네.⁷⁵⁾

75) 『景玉集』, 「久旱歎」, pp. 10~12. “太歲在黃鼠 終年慳雨澤 春夏雖少注 無由望優足 六月有
雪灑 七月全無雨 八月九月間 點滴何會遇 陽月至至月 無雨又無雪 及至季冬深 旱乾恒如
一 天地無潤氣 江河亦枯竭 況此小溪澗 到底皆生塵 村村盡呼渴 可哀山居民 朝暮負甕甕
荷 鍤尋水脈 溪心鑿數尺 凍甚如啄石 苟逢一勺流 喧呼爭沃喉 旋掬又旋竭 敢望汲盈甌 無
以溉釜鬻 何能晨夕炊 淒風利如刀 日日又猛吹 手足皆瘃裂 遍體無完肌 苦渴又苦寒 此生
良可悲 嘗聞大猷時 菽粟賤如水 今何至賤水 貴與菽粟比 又聞五行志 水旱遞相尋 今年苟
嘆乾 明歲必淫霖 極備與極無 均爲害於農 所以洪範篇 兩極皆曰旬 人言秋冬旱 應在明春

이 시는 한시 서사 방식에 의하면, 객관적 서술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⁷⁶⁾ 이 시는 장편시로 가뭄으로 인해 산촌민들이 겪는 아픔을 시인이 동일시하여 시로 형상화한 것으로, 애민 정서가 투영되어 있는 작품이다. 이 시는 내용별로 4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위에서 분절한 바와 같이, 첫번째 단은 일년 내내 가뭄이 연속되어 강과 하천이 메마르기까지를 면밀히 보고했다. 봄에서부터 겨울에 이르기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둘째 단에서는 이로 인해 산촌민들이 수맥을 찾아 헤매는 극한 상황을 재현하였다. 지속된 가뭄은 들녘을 메마르게 하였으며, 급기야 식용수마저 고갈되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겨울철에 수맥을 찾아 나선 이들의 행군은 참으로 고생의 연속이다. 얼어 터진 손발에 기갈과 추위마저 겹친 어려움으로 인해 시인 경옥은 어찌할 바를 몰라하였다.

셋째 단에 가서 경옥은 이 원인 규명에 나섰다. 옛날 문건에서, 혹은 전해지는 말들 속에서 홍수와 가뭄의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 도무지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가을을 거쳐 겨울 가뭄까지 이어지면 이듬해 봄·여름 역시 가뭄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결국 현재의 시점은 겨울인 바, 이듬해 봄 역시 가뭄이 연속될 것임을 진단한 경옥은 이듬해 파종을 못할 만큼 가뭄이 연속되리라고 추정하면서 이들의 고통지수는 가중되리라고 염려하였다.

이 역시 경옥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결국 넷째 단에 이르러 경옥은 이 문제의 핵심은 위정자들에게 있다고 문제 해결의 단서를 제공하였다. 당대 정치 행정의 중심부에 위치한 자들의 도덕성에 입각한 정치 구현과 민심에 의한 덕치 정치로 인해 하늘의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夏 春夏苟如是 百穀何由播 不知豐與歉 欲問調元佐”.

76) 林煥澤, 「現實主義의 發展과 敘事漢詩」, 『李朝時代 敘事詩』[上](創批社, 1992), pp. 25~27 참조.

이에 대한 경옥의 입장은 더 이상 표명되지 않고 극히 압축적으로 제시되고 말았다. 아주 강렬한 여운을 남기면서 위정자들의 선정과 인민들을 위한 정치 구현을 선망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이 장편시는 마무리된다. 마지막 두 시구에 경옥의 유자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상에서 경옥의 시를 살펴보았다. 결국 그의 시를 관류하고 있는 것은 그의 처사적 기반과 유자 지향성에 입각한 농촌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것이었다. 그러기에 그는 농촌에 대한 관심이 유별하였으며, 현실적으로 그가 당면하고 미적으로 체험한 것을 평이한 시어를 동원하여 시를 창작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의 시편에는 자연 미물의 중의적 표현을 통해 다양한 인간들을 풍자하였으며, 향토의 유적과 국토산하의 시적 형상과 더불어 농촌 자연의 멋과 농민들의 정서·아픔 등을 시로 형상화했다.

V. 景玉 詩의 漢詩史的 意義

경옥 이보는 처음엔 조정에 출사하여 세상을 경륜할 포부를 지니기도 하였지만 뜻밖의 과거장의 난동으로 출사의 념을 포기하고 향리로 돌아와 한평생 처사적 삶을 살다간 인물이다. 그는 17세기라는 자신이 처한 현재적 공간에서 향촌사회의 질서유지와 구성원의 교화에 힘을 쓰는 한편 농촌 주민들의 삶의 현실을 직접 목도하고 정감적인 필치로 다수의 전원시를 창작하였다.

특히 「三歎詩」, 즉 「汲兒歎」·「樵兒歎」·「久旱歎」은 그의 詩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애민시의 창작은 영남학파의 학문 전통에서 볼 때 이채를 띤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혀 전통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안동 사인층에서 산발적으로 애민시가 창작되어 왔다.⁷⁷⁾ 그리고 이런 애민시의 전통은 전 시대 학봉 김성일이 어머니와 아들이 천지간에 외톨이로 이산하는 아픔을 담은 「母別子」에서 처절히 그려져 있다.⁷⁸⁾ 그런데도 경옥의 시가 주목되는 것은 작자의 삶의 양태와 작품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고, 시의 형식상 구조면에서 장편의 서사적 양식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⁷⁹⁾

결국 경옥은 평생동안 전원엔 은거하며 전원의 정취에 흠뻑 젖어 전원을 노래한 시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때로 낭만적으로 전원을 노래하기도 하고, 사실적으로 현실문제를 시에 담아 내기도 했던 것이다. 이같은 경옥의 문예 취향은 17세기 영남학파의 학문 전통에서 보면 개별성을 지닌 一面이 있다고 보여진다.

77) 李鍾虎, 「朝鮮中期 安東處士層의 愛民憂國詩」, 『退溪學』 第8輯(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97).

78) 林燦澤, 『李朝時代 敘事詩』[上](創批社, 1992), pp. 93~99 참조.

79) 林燦澤, 『李朝時代 敘事詩』[上](創批社, 1992), pp. 250~257 참조.

VI. 結 論

景玉 李篋(1629~1710)는 퇴계의 학문을 가학으로 계승하여 향리에서 처사의 삶을 살아 간 인물이었다. 그는 퇴계의 처사 지향적 삶을 추구하는 한편 유학의 토착화에 일정한 공헌을 했던 인물로 평가된다. 다수의 유학과 연관된 논설문에서 그는 향리에서 유학을 실천하고 장려했던 노력의 일단을 살필 수 있었다.

특히, 지방 유학의 진흥을 위한 일련의 상소문에서 그는 시종 유풍 계승을 강조하였다. 특히, 「名分說」에서는 나라의 기강해이에 따른 각종 폐해를 들어 폐단 극복의 방안으로 지방 수령들이 「鄉約」의 실천을 통해 향리 주민들을 계도하고 교화시켜 유교적 덕목을 실천하여 미풍을 고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儒疏說」에서는 언론 창달에 대한 지론을 보였는 바, 우리 나라에서 역사상 유생들의 적극적인 상소 활동 전개상을 제시하면서 유생들의 언론 활동이 윤리와 기강을 세우고 폐단을 교정하여 여론 정치 창달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경옥의 처사지향적 삶은 퇴계가 추구하던 은거구도와 접맥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는 분명 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유교의 지방토착화에 기여한 인물이었다. 말하자면, 그의 전 생애가 처사적인 삶이었던 바, 그가 처사로 자처하면서 추구하던 이상은 곧 향리에서의 유교적 덕목 실천과 그러한 덕목의 파급에 따른 유교적 문화의 토착화였다. 그런 점에서 그는 유교문화의 지방화에 공헌했던 인물로 요약할 수 있다.

경옥은 농촌 자연 산천에서 전개되는 물상에서 받은 느낌을 실물 그대로의 모습으로 묘사하고자 한 입장을 취하였다.

시를 분석한 결과, 그는 강직한 처사적 면모를 구비하면서 농촌 주변의 미물인

반딧불·매미·개구리·참새·제비·황소를 우의적 수법을 구사하여 미물의 속성을 들어 다양한 인간상을 창조하여 훈계를 촉구하고 풍자하였다. 그리고 그는 평온한 농촌 자연 경관의 한적한 멋스러움 속에서 고결한 인간상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곧 유가지향적이었다.

그리고 경옥은 목가적 농촌 정서에 깊이 젖어 전통적인 우리의 농가 모습을 고운 필치로 시폭에 담아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 두었다. 그리고 경옥은 농촌의 잔잔한 목가적 정서를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개와 닭이 우는 부산한 농촌의 면모와 땀 흘리며 근로하는 농민을 시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이러한 경옥의 농촌 정서는 급기야 농민들의 삶의 고단한 현장으로 시상이 확대되어 도토리가 구황 식품으로 애호되고 있음을 기뻐하기도 하며, 물김고 나무하는 아이들에 대한 연민의 시각을 보여 주기도 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52구 5언 장편시인 「久旱歎」으로, 산촌민들이 수맥을 찾느라 기진맥진하는 정경을 형상화한 것이다. 경옥은 이 시에서 위정자들의 선정 구현과 인민들을 위한 애민정치 실현을 선망한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런 점에서 경옥은 실천적인 유자였음이 확인된다고 하겠다.

결국 그의 시를 관류하고 있는 것은 그의 처사적 기반과 유자 지향성에 입각한 향토와 자연에 대한 애정이었다. 그러기에 그는 향촌에 대한 관심이 유별하였으며, 현실적으로 그가 당면하고 미적으로 체험한 것을 평이한 시어를 동원하여 시를 창작하였다.

때문에 그의 시편에는 향촌의 미물과 아름다운 자연의 멋, 그리고 농민들의 정서와 아픔을 고운 시로 형상화할 수 있었다. 그는 뛰어난 감수성과 사실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하여 고운 한시를 창작한 시인이었고, 향촌의 성리학적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향촌 처사였음이 우리의 주목을 끈 것이다.

參 考 文 獻

【文集著書類】

『景玉集』

『退溪全書』

『鶴峯集』

『石北集』

『嶺南人物考』

『朝鮮王朝實錄』

金相洪, 『茶山 丁若鏞의 文學研究』, 檀國大學校 出版部, 1991.

金台俊, 『朝鮮漢文學史』, 民族文化社, 1991.

閔丙秀, 『韓國漢詩史』, 太學社, 1996.

朴 珠, 『朝鮮時代の 旌表政策』, 一潮閣, 1997.

宋載邵, 『茶山詩 研究』, 創批社, 1986.

宋志香, 『安東郷土誌』, 大成印刷社, 1983.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嶺南文集解題』, 嶺南大學校出版部, 1988.

李家源, 『韓國漢文學史』, 普成文化社, 1979.

李健清, 『韓國田園詩研究』, 文學世界社, 1986

李丙疇, 『杜甫 시와 삶』, 민음사, 1995.

李丙疇 外, 『韓國漢文學史』, 半島出版社, 1995.

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 嶺南大學校出版部, 1979.

_____,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一潮閣, 1995.

李佑成, 『韓國의 歷史像』, 創批社, 1982.

李鍾虎 外, 『安東의 선비文化』, 亞細亞文化社, 1997.

林燐澤, 『李朝時代 敍事詩』(上), 創批社, 1992.

- 林熒澤, 『韓國文學史의 視角』, 創批社, 1986.
- 鄭萬祚, 『朝鮮時代 書院 研究』, 集文堂, 1997.
- 丁淳睦, 『退溪의 教育哲學』, 知識產業社, 1986.
- 趙東一, 『韓國文學通史』, 知識產業社, 1994.
- 池教憲 外, 『朝鮮朝鄉約研究』, 民俗苑, 1991.
- 洪瑀欽, 『漢詩論』, 嶺南大學校出版部, 1994.

【論文解題類】

- 金泰鴈, 「退溪詩의 한 研究」, 成均館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2
- _____, 「退溪의 出處觀 - 關聯詩를 中心으로」, 退溪學 第6輯, 1994.
- _____, 「申適道の 生平과 義兵活動」, 『退溪學』 第8輯, 安東大學校 退溪學研究所, 1996.
- _____, 「石溪 李時明의 思想과 文學」, 『退溪學』 第9輯, 1997.
- _____, 「亦樂齋 金致寬의 生平과 憐民의 情緒」, 『安東漢文學論集』 第7輯, 安東漢文學會, 1999.
- 金亨權, 「晚悟 申達道の 生涯와 詩世界」, 安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9.
- 南在珠, 「松巖 權好文의 詩世界」, 安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8.
- 宋載邵, 「晦齋의 自然詩」, 『李晦齋의 思想과 그 世界』,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92.
- 吳錫源, 「安東 선비文化의 形成 背景과 現代的 意義」, 『安東의 선비文化』, 亞細亞出版社, 1997.
- 吳壽京, 「安東 선비의 文化意識과 鄉土文化 暢達」, 『安東의 선비文化』, 亞細亞文化社, 1997.
- 李東歡, 「晦齋의 道學的 詩世界」, 『李晦齋의 思想과 그 世界』,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92.
- 李佑成, 「李退溪와 書院 創設運動」, 『韓國의 歷史像』, 創批社, 1983.

- 李源杰, 「景玉集 解題」, 『退溪學 資料叢書』(3次分) 40, 1999.
- _____, 「龍巒 權紀의 詩에 反映된 文藝美」, 『安東文化』 第6輯, 安東文化院, 1998.
- 李鍾虎, 「退溪美學의 基本性格(上)」, 『退溪學』 創刊號, 安東大學校 退溪學研究所, 1989.
- _____, 「屏谷 權渠의 闡幽錄을 통해 본 18세기 안동의 민중형상」, 『安東文化』 제13집,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1992.
- _____, 「16~17세기 退溪學派 安東處士層의 言論活動」, 退溪學 第7輯, 1995.
- _____, 「朝鮮中期 安東處士層의 憂國愛民詩」, 『退溪學』 第8輯, 安東大學校 退溪學研究所, 1996.
- _____, 「佔畢齋 金宗直의 文學觀에 나타난 階層意識」, 『漢文學研究』 제12집, 啓明漢文學會, 1997.
- _____, 「朝鮮中期 安東處士의 典型과 現在的 意味」-龍巒 權紀의 鄉村活動과 漢詩創作-, 『安東漢文學論集』 第6輯, 1997.
- 이효숙, 「谷雲 金壽增의 한시 연구」, 江原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0.
- 林榮澤, 「16世紀 士林派의 文學意識」, 『韓國文學史의 視角』, 創批社, 1984.
- _____, 「現實主義의 發展과 敘事漢詩」, 『李朝時代 敘事詩』(上), 創批社, 1992.
- 張浩重, 「月川 趙穆의 現實認識과 詩世界」, 安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3.
- 朱昇澤, 「16세기 安東 선비의 鄉土觀과 國家觀」, 진단학보 78집, 진단학회, 1994.
- _____, 「安東 선비의 鄉土觀과 國家觀」, 『安東의 선비文化』, 亞細亞文化社, 1997.
- 黃萬起, 「烈女傳 研究」-安東文化圈을 중심으로, 安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9.

A Study on Kyung-Ok, Lee-bo's
Confucianism Consciousness and Poetry World

Kang Hyun Gu

Major in Sino-Korea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nd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Kyung Ok(景玉), Lee-bo(李篋, 1629~1710) was the one who was succeed the scholarship of Toe-gye(退溪) and lived in a native village as a scholar in retirement. He was evaluated as a figure who pointed to a scholar in retirement and settled Confucianism. In many thesis related to confucianism, he was the one who effortted and encouraged Confucianism. Especially, he emphasized the succession to a custom handed down in a literature from start to finish for appealing the promotion of local Confucianism.

Especially, he emphasized a laudable custom as a device for overcoming many abuse which were caused by growing lax a public order in "The theory of Justification". He said that the laudable custom was enhanced when instructed and cultured native people and then practiced the virtue of Confucianism. Also he suggested the cherished opinion about the promotion of discussion in "Confucian-novel" and emphasized the merits of Confucian scholar's discussion activity which promoted the discussion politic through made a public order and remedied an abuse.

The result of poetry analysis, he possessed the feature of retired scholar and promoted admonition and satired through created various aspect of human with a generic character of minute forms of life such as firefly, cicada, frog, sparrow, swallow, and ox by means of commanding allegorical way. And he pursue noble character of human in a quiet view of the country. This recognition was namely a Confucianism-directivity.

And he wrote the appearance of our country with a pure-minded poetry like a picture because he lost in the pastoral emotion of rural community. And he not only expressed a serene pastoral emotion but also gave shape a bustling farm village which has barking dog and cock and peasant who worked hard to poetic.

In this Kyung-Ok(景玉)'s farm village emotion, the poetic sensibility was expanded to exhausted life and he was pleased with loving for hardy crops of an acorn and overcome with compassion toward boys who drew water and went to gather firewood.

Especially most worthy of note is a long piece of poetry "Gu-Han-tan(久旱歎)" which is consist of 55 - 5, it gave shape the mountain villain who endeavor to find a water route. In this poetry Kyoung-Ok(景玉) made an expression to embodiment of good government and the will of envy.

Eventually it is love for farm village and nature which is based on a retired scholar Confucianism-directed that flew through his poetry. So he was interested in country village and he composed his experience and immediate work as a poetry which was used a ordinary words.

Like this, his poetry deepened our impression that he was a literature-directivity. And he was a poet who composed Chinese poetry based on sensibility and view of reality and the one who endeavored for the culture settlement of Sung Confucianism.